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1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중단 차원으로 처음 펴낸 '신도입문서'가 출간 1달여 만에 1만부가 판매됐다. 불자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입문서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였나 여실히 보여준다. 부처님의 법(法)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시면서 스스로 의지할 것이며 법(法)을 따르라는 유훈을 남기셨다. 굳건한 믿음은 교리 그 자체를 아는것에서 출발한다. (편집자 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법(法)의 거울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법을 믿으라. 법은 참되고 바르며 열반에 이르게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믿는 것이니라.(장아함경)

법을 들으면 다섯 가지의 공덕이 있느니라.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법을 들어서 그것을 읽고 외울 수 있고, 생각이 산뜻해 흐트지 않고, 믿음이 생기며, 진리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느니라. (중일아함경)

나는 이제 믿고 받아들여 즐거이 듣는 자를 위해 설할 것이요, 두려워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자를 위해서는 설법하지 않으리라. (장아함경)

내 법을 완전히 이해하거든 법답게 받아 지키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거든 나에게 묻거나 지혜있는 수행자들에게 물어라. (중아함경)

불법은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은 불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불법과 세간법은 서로 혼란을 빚는 일이 없으며, 또한 차별이 있지 아니하다. (화엄경)

원한 없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다툼 없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비방 없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보장경)

온갖 악 짓지 말고 모든 선 실천하며 제마음 맑게함이 부처님네 가르침이다. (열반경)

불법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온갖 언설의 미칠 바가 못된다. 이는 화합도 아니요, 화합 아님도 아니니, 체성(體性)이 고요하여 갖은 모습을 떠났느니라. (화엄경)

믿음이란 계율 보시 듣기 버리기 지혜를 믿는 것이니 이것이 믿음이다. (잡아함경)

스스로 믿고 남을 믿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더욱 더 어렵다. (왕생예찬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이의 백년은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이의 하루만 못하다. (법구경)

관련기사 15면

신병교육대 법당불사 '한창' 15면
'참사람 결사' 특별법회 연다 14면
성북동에 茶도량 생겼다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사찰환경 수호결의 3천여 스님 모인다

조계종 전국본말사 주지대회 22일 조계사서

"사찰환경 파괴, 더 이상 좌시할수 없다."

전국에서 자행되고있는 사찰환경파괴 및 불교관련 악법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본말사 주지스님들이 결집된 불교계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스님이 참석하는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5개 전국교구본사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지자체 이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사찰환경 파괴 저지와 사찰환경권 보장 △전통사찰의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불교관계 국가법령의 조속한 개정 및 철폐 △개발음의 사회화운동 실천을 천명한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대정부를 향한 불교계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전국교구본사회는 교구본사주지 및 소임자, 말사주지(공칠 8백개),확인대중(1천여명),종단관련 법인산하(선학원, 대각회등), 타종단(보문종) 스님등 3천여명을 동원한다는 방침아래 자료집발간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재)선학원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이번 결의대회는 명실상부한 불교계 초유의 승려대회가 될것으로보인다.

총무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사찰환경분쟁이 전국에서 50여건 진행중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협의중인 전사법 농지법 건축법등 불교관계법령개정이 정부측의 관심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어 불교계의 뜻을 천명하기위해 이번대회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무원 기획실장 현응스님은 "전국승려대회는 교계 내부의 일을 처리하기위한 초법적인 대회인 반면 전국 본말사주지대회는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주지스님들이 대내외적으로 불교계입장을 밝히는 자리여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대회를 통해 불교계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찰환경보존을 위해 전문가 15인으로 (가칭)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이달말경 구성한다. (이준엽 기자)



◇지난 5일 20년만에 석굴암 내부가 공개되면서 내부 돔뿐아니라 본존불 왼쪽 무릎 아래에도 7군데의 균열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석굴암 본존불도 '균열'

20년만에 공개…관리국 "정밀진단 의뢰"

석굴암(국보 제24호) 내부 돔에는 길이 2.3~5m, 두께 0.5~0.8mm의 3개의 균열이 있으며, 본존불 왼쪽 무릎 아래에서도 7군데의 균열과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 문화재관리국이 석굴암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64년 제4차 석굴암보존 공사를 마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석굴암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균열이 확인된 곳은 당초 제기됐던 석불 동쪽 외에도 북쪽과 서쪽부위에 각각 길이 2.3m와 4.4m(폭 0.5mm)의 균열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본존불 왼쪽 무릎 아래에는 길이 1m, 폭 0.5mm, 연꽃받침과 왼무릎의 접합부분의 30Cm등 모두 7군데의 균열과 백화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내부 돔의 균열은 인정했으나, 본존불 무릎 아래의 균열과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배포된 보수현황자료에는 물론 이날 참석한 문화재관리국의 관계자 역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고고학회, 경주역사 '건천' 지지

경마장 철회 촉구도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는 지난 1일 '경주 고속철도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건천면 방내리에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고학회는 성명에서 "경주역사의 위치로 건천일대를 지지하는 것은 경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고속철도 경주역사가 내남면에 설치될 경우 발생할 경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파괴는 매장문화재 및 개의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고학회는 또한 2일에도 경주 경마장 건설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적도시에 경마장을 짓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화파괴 행위"라며 경마장 건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건교부 의뢰로 경주도선 노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교통가발연구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에는 문체부와 건교부 경주시 추천위원 17명이 참가했으며, 추천위원들은 역사 위치와 관련 건천면 방내리와 내남면 덕천리를 놓고 광범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혜암스님 방장사표 반려

조계종 123회 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1일 제123회 정기종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로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4면)

종정감사와 중앙종무기관감사에 이어 7일 속개된 중앙종회는 혜암스님 방장사표를 반려했다. 종회는 97년도 예산심의 건, 원로의원 추천의 건, 종법 제 개정등 23개항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진관스님 구속 항의 종회·국제사면위 등

진관스님구속 진상규명과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진관스님 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대한민국 불교인권운동가의 체포'라는 제하의 서한을 통해 "진관스님은 단지 양심적인 인권활동 및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비폭력적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구금된 것"이라며 한국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도 지난 5일 '진관스님석방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종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종단과 종회의 명예에 중대한 위해"라며 진관스님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진관스님구속 진상규명 및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지난 10월 25일 동국대에서 진관스님석방촉구 및 민주기본권수호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하고, 조계사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권우치 강화 해운사주지: (2구좌) △김무구 도광사스님: 부산 연학초등(1구좌) △성공 앙산 악천사스님: (1구좌) △박용규: 울산 여고(1구좌) △송민윤: 삼일여고(1구좌) △남궁선: 익산중·익산종고(2구좌) △채진연: 포항 황도여중(1구좌) △심성수련 자원봉사 선생님 (한진희 박병림 이문갑 전혜숙 조명희): 서울 남성중(1구좌) △이동기: 부산 금정중(2구좌)
(11월7일 현재 총 527구좌 접수)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 (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지역 학교·출신 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현대불교신문사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차안에서 느끼는 TV, 영화, CD원음의 감동-
현대 카AV시스템!

비디오CD,TV, FM, AM, TAPE, 음악CD 6매 자동선곡까지-
국내 최초 일체형 현대 카AV시스템

오디오로만 만족하던 카오디오에서 최첨단 비디오까지-
현대 카AV시스템은 생생한 영화, TV에서 6장 CD자동선곡의
선명한 음악감상까지 자동차 생활에 최고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달릴때에는 원음의 감동으로, 머물때는 생생한 영상으로
레저타는 자동차 -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카AV시스템 (HAV-41)
-7" TFT-LCD TV
-AM/FM TAPE
-VIDEO CD CHANGER CONTROL
-소비자가격 ₩ 3,097,800

가격인하
■비디오CD체인저(HVC-200A)
6매 CD CHANGER
-5인치 VIDEO CD 재생
-리모콘겸용 서랍타입
-소비자가격 ₩ 532,400

■CAR-TV(HLT-51)
5" TFT-LCD TV
-소비자가격 ₩ 727,000

• 장착비는 별도임
• 주의 : 운행중 TV시청은 해당차모니터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청하십시오

대리점

일산전시장 오픈기념 할인행사
• 기간 : 96. 11. 1 ~ 11. 30
• 장소 : 경기도 이천시 이천무세국 사서함 1010호
전시장 안내문의 Tel 0336)39-6662/1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

사 설

'방내리' 지지 이유

경주를 통과하는 고속전철의 건설을 두고 해를 넘기며 거듭하던 논쟁이 이젠 다가오는 12월로 마무리를 지어야할 벼랑에 몰렸다. 당초부터 이런 논쟁의 불씨는 이미 사업을 결정하던 단계에서 극명하게 내포되어 있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던 주최기관에서 과거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관행의 타성에 젖어 너무 안이하게 결정한데서 문제는 비롯되었다고 본다.

지금 논쟁의 초점은 지엽적인 문제로 좁혀져서 경주의 역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하는 문제로 집약된듯 한데 이런 강요된 선택의 폭이라면 경주의 역사가 어느쪽에 위치하던 근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2월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면 '건천을 방내리'에 역사를 설치할 것을 차선책으로 동의한다. 이 차선책은 역사의 선택과 병행하여 보다 근본적인 '고도 경주'의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여러 문제를 즉각 수립한다는 전제에서 동의하는 것이다.

우선 건천을 방내리에 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내남면 덕천리에 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를 몇가지 지적해 본다.

첫째 문화재의 훼손 정도를 비교하면 두쪽 모두 훼손의 위험은 함께 가지지만 방내리쪽이 양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방내리 주변에는 단석산이 있고 그 산너머는 신선암이 있다. 그리고 들 복판에는 황폐한 상태로 방치된 금적리 고분군이 있는데 반해 덕천리는 남산에서 불과 2~3㎞ 정도의 거리에 있고 경덕왕릉과 천룡사지의 경관과 연관되어 있다.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는 것이 없겠으나 비교하자면 방내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다. 특히 산 자체가 불교문화재의 보고인 남산이 결코 다쳐서는 안된다.

둘째로는 역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뒤따를 역세권의 형성인데 이는 새로운 도시의 건설을 의미한다. 덕천리 일대가 지리적으로 울산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반해 방내리는 건천 아화 고아명리 등이 이웃하고 분지가 매우 커서 신도시 조성에 상대적인 무리가 없다. 덕천리 일대가 남산을 옆에 두고 있어 스카이라인 관계로 건물의 고도에 제한을 받는 대신 방내리는 제한을 받을 사적지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 오히려 경주시내의 사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이점도 안고 있다. 역사건설로 인한 교통망을 보면 덕천리에서는 울산 언양쪽으로 교통망이 편중되어 있어 경주와 연결하자면 새로운 도로망의 건설이 불가피 하나 방내리에 역사가 들어서면 건천에서 남쪽으로는 산내 언양, 서쪽으로 영천과 대구, 동쪽으로 경주와 울산, 북쪽으로 포항과 연결된 기존의 도로망이 있어 사통팔달하며 혹시 새로운 도로망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다.

끝으로 유의할 점은 전체 국민들의 진정한 정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초적이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기형적인 발달로 경제도 잃고 문화재도 잃을 것이다. 문화재 우선정책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문화재로 인한 후세의 경제적 이득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는 우리 민족의 집약된 문화유산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아무리 부흥한 경제라도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적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교훈삼자.

열린마당

경주 문화재 관리

세계 10대 유적지의 하나인 천년 고도 경주가 신음하고 있다. 석굴암을 비롯해 분황사탑, 성덕대왕신종 등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면, 경마장과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문화유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다. '경주 파괴'는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역사 파괴와 다름없다. 무너져가고 있는 경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종단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로부터 경주보존대책에 대한 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종단·지역사찰·관련부처등 유대강화

성관스님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경주지역의 각 사찰과 불자들이 하나가 돼 경주를 지키는 '지킴이'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종단과 지역사찰 그리고 정부와 경주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경주보존에 나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종단도 경주에 불교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는만큼 소극적 방치가 아닌 적극적 보존방식을 강구한다는 방침하에 오는 22일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해 경주문제를 포함해 자연환경과 민족문화유산 수호를 위한 대 국민 선언으로 이들 문제에 대해 발빗고 나설 계획이다.

문화유적의 파괴는 곧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단순한 관념적 틀을 벗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사회부가 곧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화부가 문화재를 전담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체계적인 종단의 문화재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국가차원 보존마스터플랜 세워야

지건길 〈국립경주박물관장〉

경주보존을 논의할만한 공식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황사 보수나 아파트건립 반대 등은 지엽적인 문제해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주보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특별시로 지정하는 것이나 관련법령 제·개정 등을 그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스터플랜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경주보전은 땜질식 보수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경주의 문화정책은 부족한 인력과 재정 그리고 관련법령의 미비 등으로 제 역할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개발정책이 남발되고 있는데도 제어할만한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발에 앞서 여론수렴을 거친다고는 하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수의 무지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경주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경주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경주보존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장기적 안목에서 하루속히 수립돼야 하며,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남산 휴식년제 도입

김덕수 〈경주남산사랑모임 대표〉

원칙적으로 경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주의 민선시장으로서는 여러가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는 행정을 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과 동천동 우방아파트 건립허가 등 경주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장과 담당자들의 문화적 소양과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경주를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하는 것은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는 일이다. 세계적 문화유적도시에 걸맞는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문화재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주시민이 있다면 이들에게 그만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 최고책임자의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된 후에는 각론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각종 법제의 정비와 남산휴식년제의 도입, 훼손된 유적의 복원 등에 대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경주를 더이상 소극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일명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내부. '孫' '1995.7.21' 등의 낙서로 더럽혀져 있어 국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지경이다.

훼손현황

지정문화재 283점 관리소홀 '신음'
주변환경 아랑곳 개발 위주 '문제'

지난 6일 20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석굴암(국보 제24호) 내부에는 콘크리트돔에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몸체, 좌대, 연꽃받침에도 금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존대책이 시급한데도 석굴암은 지난 61년 보수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정밀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분황사 모전탑(국보 제30호)의 탑신부와 첨성대(국보 제31호)는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경주남산에는 목잘린 불상들이 어지럽게 나뒹구는 등 곳곳이 파헤쳐진채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훼손우려를 이유로 타종하지 않다가 지난 9월 안전진단을 실시했던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일명 에밀레종)에 어른 손가락 크기만한 구멍과 길다란 흠집이 수십개나 발견되고, 신종 내부에 쇳조각으로 휘갈긴듯한 낙서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짐으로써 문화재관리에 관한한 '무정부 상태'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새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로인한 문화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또한 천년고도 경주가 시들어가고 있는 또다른 요인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주 고속철 문제는 아직까지도 노선을 확정짓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손곡동 일원에 세워질 경마장은 문화재파괴는 물론 문화유적도시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천동 아파트는 시굴과정에서 신라시대 담장기초가 출토되면서 건립에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뒤늦게 주변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12층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등 땜질식 행정으로 경주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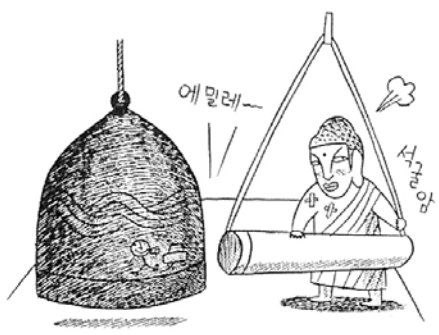
이외에도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산성비 피해로 문화재가 부식, 훼손돼 가는 등 대기·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에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1백98점, 도지정 문화재 49점, 문화재 자료와 전통건조물 36점 등 총2백83점의 지정문화재가 산재돼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문화재 관리에 경종을…

목어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

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이 미쳐가나" 싶다.

거리에 나가면 교통지옥에다 호흡까지 힘들고, 악랄한 살인사건, 공비침투, 공직자 비리, 서울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비리, 뽀빠이 이상룡의 성금착복 혐의 등 우리를 슬프고 노엽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줄을 잇는다.

그런 와중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랑의 꽃이 가끔씩 피어나 그래도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

오순택 할아버지(80)는 전재산 10억원을 불우한 청소년들의 장학기금으로 써달라고 군포시에 전했다. 그는 말단공무원이었고 농부였다.

안먹고 안쓰고 모은 현금 2억원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돼 받은 보상금 8억원을 내놓았다.

50억원대의 전재산을 장학사업에 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일 간암으로 숨진 인천의 김병수 할아버지(73)도 막노동꾼에 농부였다. 그는 지난 91년 어렵게 모은돈 56억원으로 인천에 대인종합고등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김병수이사장은 "돈을 낸 사람은 학교일에 간섭해서 안된다"며 충남 당진으로 집을 옮겼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모은 전재산 55억원을 지난 7월 부산대학에 기증한 곰탕집 강처녀할머니도 우리를 감동시킨 한 분이다. 아직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할머니가 지난 5일 전세방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 그러나 할머니가 남긴 보시정신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 있으리라.

홍영덕씨(35)는 서울시민중 최다헌혈 기록으로 10월28일 서울시민의 날에 '내가 최고' 부문에서 서울 기네스상을 받았다. 그는 15년간 117회의 헌혈을 했다. 그리고 헌혈증서를 백혈병환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뿐아니다. 온몸을 장기기증카로해 '몸나누기 이웃사랑'이 죽은뒤까지 이어지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를 심어 열을 낳고 열을 심어 백을 낳고…만을 심어 억을 낳나니, 선행으로 인해 진리의 도(道)를 보게 되리라."

'나는 오늘 이웃을 위해 무엇을 나누었나.' 자기를 들여다 보자.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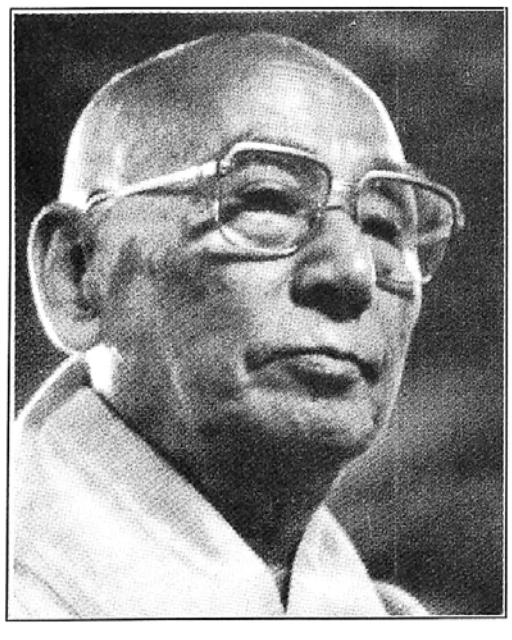
공부하는 방법

거문고 줄을 너무 쳐어도 소리가 나지않고 완전히 늦추어 놓아도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다.

협찬 청연암
주지 성욱
TEL.(0556)72-0078

"불우 노인 위안" 자비의 대잔치

서암 큰스님 조청법회(전 조계종 종정)



■ 일 시 : 불기 2540년 11월21일(목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마산 MBC홀
■ 주 최 : 현대불교 경남마산지사(0551)23-5438,44-5128, 불교자비원
■ 후 원 : 경남신문사 · 불교부산방송 · 마산 MBC · 마창불교연합회

■ 축하공연 : 가수(현숙, 김태곤, 변혜림, 너훈아, 이탄실)
스님(심진, 혜초스님 찬불가)
(권종수 예술단)불교합창단, 살풀이, 오광대, 각설이, 춤과노래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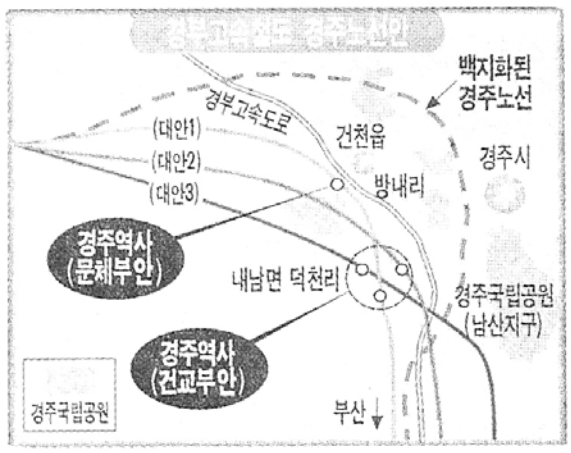
■ 선물증정 : 참석자전원(표구용)보왕삼매론
해인사8만대장경판「반야심경」탁본

협찬
무학주조주식회사
밝은 미래의 다정한 빛 — 경남은행
대원종합건설주식회사 DAEWEON CONSRUCTION CO. LTD 代表理事/社長 李鍾鎭
정통불교조각 · 미술연구소
○ 불상(청동특수불)
○ 입상,삼천불, 불교조각
○ 단청, 탱화
대표 정철
(0551)71-8414 · (011)571-6242

방내리 문체부안 - 덕천리 건교부안 '줄다리기'

"문화재·남산훼손 안된다"

경부 고속철 경주역사



신라불교의 성지 경주가 개발로 인해 각종 문화재와 불교유적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주남산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받아 노선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일까지 경주에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자문위원 토론회를 가졌다. 문체부와 건교부 그리고 경주시 추천으로 구성된 17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의장 1명을 빼고 건천면 방내리와 내남면 덕천리를 지지하는 비율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 추천 자문위원들과 건교부와 경주시추천 일부 자문위원들은 건천면 방내리를 지지하고 있다. "고속철도 경주노선은 역사와 문화도시 경주를 개발하고 보존,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역사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내남면 덕천리는 경주의 성산인 남산과 가까워 개발되면 경주경관을 해치게 된다. 입지가 좁아(65만평) 개발에도 어려운 덕천리보다 2백만평이나 되는 방내리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재관련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고고학회도 건천역사를 지지하고 있다. 고고학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고속철도 역사를 내남면에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경주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파괴는 매장문화재 몇 개의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경주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남면 덕천리를 지지하는 자문위원들은 "역사가 들어서도 2차산업 등 인구유입 잠재력이 없는 경주에서는 역세권이 크게 개발될 수 없다. 방내리는 문화재 발굴시간 때문에 공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발굴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내남면 덕천리 일대가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불교계에서는 노선결정권이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울산과의 도로연계를 구상하고 있는 건교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남산옆을 지나는 내남면 덕천리가 완공후 5년후에 경주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1일 9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 인원의 수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10차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산에서 덕천리 역사예정지 까지는 직선거리로 2Km 떨어져 있을 뿐이다.

방내리 환경·문화 유적 보존 유리

덕천리 울산 연계·비용 절감 이점

연말확정…교계·학계·시민등 '방내리 지지'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형균씨는 "불교문화의 성지인 경주남산이 차량매연과 소음, 도로확장에 따른 주변개발로 더 이상 불교성지로서의 면모를 지켜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학과)는 "역사와 경부고속도로로부터 남산까지는 완전히 도로로 들어차며, 남산을 따라서 개발될 확률이 높아 남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6월 총리실은 불교계와 학계의 '경주 문화재 보존·복구' 의견을 받아들여 도심통과노선을 백지화해 개발보다는 보존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덕천리 역사를 결정할 경우 정부 스스로의 논리를 뒤엎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고고학회의 지난 1일 성명에서도 나타난다. "고속철도 건설에서 발생할 문화제 훼손과 파괴를 공학적·수리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인사들에 의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현실에 깊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방내리와 덕천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중간결과 발표(15일) 이후 공청회를 거쳐 12월중 경주노선과 역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종단협 '조찬법회' 싸고 갈등 표출 진흥회

진흥회, 18일 각계대표 초청 '국가위한 대법회' 봉행

종단협, "불교계 분열 조장" 참석만류 공문 띄워 저지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배일공 원융종 총무원장. 이하 진흥회)가 오는 18일 롯데호텔에서 '국가와 겨레를 위한 대법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불교계 분열'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미묘한 파문이 일고있다.

종단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에 발족한 진흥회는 이번에 산하 20여개 종단이 모여 국가 삼부요인과 각 정당대표, 정계, 관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대표인사 1백50여명을 초청해 조찬형식으로 각 종단지도자를 비롯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종단협은 지난 5일 종단협산하 각종단 총무원장에게 공문을 통해 "진흥회는 임의단체로 이번 조찬법회는 종단협과 무관하다"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 법회동참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종단협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정당 비서실장에게도 발송해 정치권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종단협이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진흥회가 종단협산하에 있는 일부종단의 모임으로 종단협과 협의없이 대규모 법회를 진행하기 때문. 종단협은 진흥회가 추진중인 이번 법회에 대해 "불교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종단협의 활동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종단과 정치권에 전달된 종단협입장은 사실상 조계종의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계종이 종단협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종단협소속 일부종단이 모여 대규모법회를 준비하는 것은 조계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계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과 진흥회의 갈등은 이미 지난 10월30일 종단협 정기이사회에서 불거졌었다. 이 자리에서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은 "진흥회라는 또다른 단체 결성은 불교계를 분열하는 것이다"며 해체를 요구했고 진흥회 측은 "친목단체인 진흥회 결성은 그동안 조계종의 독주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불교계의 내홍은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호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심껴안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걸고넘어 여겨지고 있던 조계종을 견제하는동시에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이용할수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진흥회 조찬법회에 여당의 당직자가 깊숙히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진흥회 회장 배일공스님은 "진흥회는 순수한 친목단체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며 "나라를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하는데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참석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종단협과 진흥회가 정치권을 동원한 기원법회를 앞두고 팽팽히 맞서고있어 향후 불교계 지각변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엽 기자

시론

젖은 쓰레기 대책



노 귀 남
〈경희대 강사〉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금지 문제로 매립지 운영과 당국의 정책은 쓰레기통 쑤셔 놓은 것처럼 또 한번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젖은 쓰레기를 체에 받쳐 물기를 짠다, 양파망이나 스타킹에 담아 물기를 짠다, 베란다에 내다말린다 등 아이디어를 짜내는 주부들 노력이 진지한 것 같은데, 웬지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여성들만의 문제인가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 금지를 그 동안 수차례 예고한 이유가 있었다.

당초 매립지 시설이 잘못되어 침출수 처리 용량은 턱없이 모자랐다. 참기 어려운 냄새에다 쓰레기 썩은 물이 흘러넘쳐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매립지 앞바다는 시화호보다 훨씬 심하게 오염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은 당국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계속 아무 반응도 없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침출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쓰레기 대책의 근본 문제들은 접어두고, 청소차에 물기가 흐르지 않게 하고, 주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당국은 지금의 조처가 성급하고 불편하더라도 '환경 문제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이라는 식이다. 매립지에 비만 한 번 오면 헛일이 되고 말 노력을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숙하다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문제가 식당 주인과 주부들의 노력으로 될 일이며, 또 매립지 침출수가 약간 줄어든다고 해결되겠는가. 만약 국물 처리로 해결될 것 같으면 나부터 한약 짜듯 쓰레기를 짤 베보자기를 마련할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 파동도 총체적인 환경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주로 여성들의 노력과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올바른 대안을 찾는 기회도 잃고, 엉뚱한 문제를 덧붙이는 꼴이 될 것이다.

발전된 거대 산업사회의 골치거리 부산물이 쓰레기이지만, 이 문제를 뒤집어 보면, 쓰레기는 주산물이다. 물질적 욕망을 한껏 부채질하는 과소비 사회는 자연계와 인간계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모든 자원을 쓰랜다. 환경 파괴는 그만큼 쓰레기가 쌓이도록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산, 유통, 소비 모든 단계에서 쓰레기가 넘쳐 나와, 토양 수질, 대기, 주거 등 환경 전체를 함께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삶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이 깨져 갈등과 고통과 문제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를 보는 시각도 균형을 잃고 이해를 따져 책임을 전가한다. 이때 우격다짐으로 약자가 짐을 지게 마련이다. 이번 매립장 파동을 보면서 여성문제를 생각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제를 보는 눈을 근시안으로 만들고, 그것이 마치 가장 쉽고 편안하게 전체를 위하는 길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은 내일을 생각하여 멈춰야 한다. 만약 이 시점에서 여성들이 고분고분 음식물 쓰레기를 열심히 짜대고 있으면 우리 환경 문제는 더욱 위기로 빠지고 만다. 차라리 쓰레기를 들고 나가 시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문제 최우선 과제

지구 생태계는 과학적인 쓰레기 처리와 오염 방지책, 완벽한 하수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해도 대안이 못 되는 고갈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판에 당국은 대책도 없이 국물을 짜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이제, 환경 문제는 취우선 국책으로 삼아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두고 생각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더 나아가, 사회 생활에서 갈등과 고통을 만드는 가치체계를 반성해 봐야하는 철학적인 숙제이다. 부처님의 의식주 생활정신을 거울삼아 자본주의적 물질가치 중심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생산과 소비체계를 찾아 보면 어떨까?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

94년 불교자주화를 향한 뜨거운 외침 !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아직도 각종 불교관계법령과 제도가
불교발전을 가로막은 채
향락·위락시설이 환경을 파괴하며
수행관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불교가
나와 이웃, 자연, 사회, 민족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11월 22일 조계사 결의대회!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일 시 : 11월 2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조 계 사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전국 교구본사

법회 안내

금선사(02)395-9911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목장군법당 안등기도
매월 7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보왕회법회 2·4주 일 오후3시
철야기도
매월 7일(음) 오후10시~오전4시

광도사(02)979-5183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경전읽기 매주 금 오전10시

도선사 포교당(02)352-5405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미타재일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법련사(02)733-5322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선우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대명심인당(053)625-6627

자성일불공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학생회법회 매주 일 낮12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월요일
~일요일 오전10시

구화사(053)323-498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초발심자경문 및 지장경강의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금강경강의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보리원(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가족법회 마지막주 일 오전11시

삼락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장안사(0344)63-1954

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장안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법왕사(0391)647-9450

인등기도 매월 7일(음) 오전10시
천불전 봉찬기도 15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 부의장 법등·청화스님



"집행부 견제·정책개발 업무 주력"

"종회가 지난 2년동안 종단의 안정에 힘썼다면 앞으로 2년은 집행부 견제와 정책제시등 종회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개회한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제11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된 설정스님은 "종단의 부조리 타파를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종회가 되도록 하기위해 분과위활동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근대사에서 교단이 겪었던 아픔가운데 상호갈등이 가장 큰 상처였다"고 지적하고 "21세기 급변하는 전환기에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도들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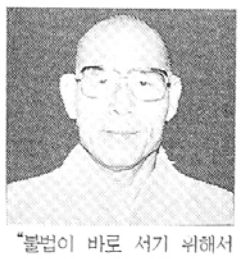
지난 상반기 종회의장을 역임하면서 민주적인 종회운영을 해왔다는 평을 받고있는 설정스님은 "하반기에 중복되거나 미비된 종헌·종법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의원들의 뜻을 수렴하는데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하며 종회의장 자리를 이용해 사리사욕에 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설정스님은 1955년 원담스님을 은사로 수덕사에서 출가한후 61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그후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수덕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94년 개혁회의당시 법제위원장을 맡아 개혁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한편 이날 수석부의장으로 선출된 법등스님(도리사 주지)은 "종도들의 뜻을 수렴하는 종회가 얼마나 제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종단과 불교발전이 관가름난다"며 "종회가 종헌종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석부의장에 재선출된 청화스님도 "종회에 상정된 안건이 합리적으로 검토되고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98년 7월까지다.

이준엽 기자



"스님·청소년 인재 양성 후원"

금정장학회 설립 벽파스님

"불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승가가 바로 서야합니다. 대중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스님들의 자질향상이 시급합니다. 이번 금정장학회설립은 공부하는 스님들의 지원과 미래불교의 주역인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불사입니다."

오는 15일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스님 10명과 중학생 10명에게 모두 8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펴 나갈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이사장 벽파스님이 밝힌 설립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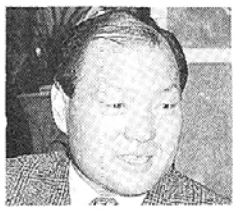
금정장학회는 범어사 원로스님(벽파, 덕명, 홍교, 영환, 보해, 여현)을 발기인으로 설립돼 불교대학, 대학원 및 불교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스님들과 선방이나 강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각 종립학교의 청소년 불자양성과 불교관련 학술연구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벽파스님은 "인재 양성으로 밝은 미래불교를 일구어 갈 금정장학회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뜻있는 재가불자와 스님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결성중"이라며 "승가와 재가가 뜻을 모아 올바른 대중교화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민족 동질성 회복 불교의 몫"

'통일로 파발제' 개최 이배영 은평구청장



"통일은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이질화된 남북의 정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불교입니다. 북한등포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은 불교인의 몫입니다."

지난 10월31일 개성과 평양으로 통하는 길목인 통일로와 구파발에서 '통일로 파발제'를 열어 겨레의 소망인 통일의 의지를 구현한 이배영 은평구청장은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불자들에게 통일의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발(擺撥)이란 변방으로 가는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선시대의 통신수단. 이 행사를 4백여년만에 재현한 이 구청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육성하고, 앞으로 남북통일시대에 관문역할을 수행할 은평구의 지리적 특성을 조화롭게 혼합한 문화행사"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6년전부터 남북문화교류협회 회장직을 맡아 통일운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입적한 서경보스님으로부터 호암(虎巖)이란 법명을 받았다.

정성운 기자

교차로

오대산 공비토벌 장병 위문

현해 월정사 주지는 지난 4일 오대산에서 무장공비 토벌작전중인 군장병들을 방문, 식음료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통도사 주지에 피선



월파스님은 지난 5일 통도사 임회에서 불보종찰 통도사 주지로 추천됐다.

BBS 능엄경 강좌 회향

일연 동학사 주지는 오는 18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BBS 프로그램 경전공부의 능엄경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금강정사 만등불사 입제

지홍 금강정사 주지는 지난 3일 요사채준공법회를 봉행했다. 또 법당건립을 위한 만등불사 입제식도 봉행했다.

광주사암련 회장에



상명 삼정사주지는 지난 4일 50여개 광주시 사찰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광주사암련 회장에 피선됐다. 상명스님은 "광주불교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벤트사업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적멸보궁 백일기도 입제



삼보 법흥사주지는 오는 16일 적멸보궁에서 불자들과 함께 백일기도를 입제한다. 회향은 97년 2월22일. (0373)73-8177

고희기념 서집 봉정받아

김응현 동방연서회장은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동방 40주년展' 개막식에서 문하생들로부터 고희기념 서집을 봉정받았다.

후원회장 취임식 개최



조동희(사)한국청소년사랑회 이사장은 오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상현후원회장 취임식 및 후원모임을 갖는다.

감사원 총무과에 복직

이문옥 前 감사관은 지난 4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 파면 처분된지 5년7개월만에 복직, 감사원 총무과 직원(4급)으로 임시 배치돼 출근했다.

MBC '우정의 무대' 진행

김병조씨(코미디언)가 심장병 어린이돕기 후원금 유용혐의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이상용씨의 후임으로 오는 17일부터 MBC '우정의 무대' 진행을 맡는다.

獨광법사 법당마련 귀국



오는 12월1일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독일 광법사 법당마련을 위해 일시 귀국한 한연희보살은 "브레멘에 작은 아파트에 법당이 있긴하지만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매월 첫 일요일마다 일본계 사찰에서 법회를 보고있다"고 전하면서 "부천 석왕사 도움이 있지만, 법당마련을 위해 고국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석왕사(032)663-7777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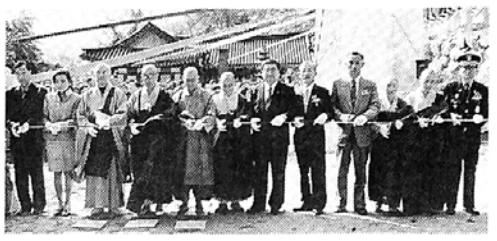
게시판

모집 수화점자 수강생=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수화·점자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20-4528

강좌 대승기신론=(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 특강을 마련한다. (02)765-9602

부음 지혜스님(한불국제여행사장)이 지난 7일 새벽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입적했다. 발인은 지난 9일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한불국제여행사葬으로 치뤄졌다. (02)730-1411

화촉 원성일 대한불교신문사 차장은 오는 17일 광릉내 애토예식장 2층 홍실에서 윤현숙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백양사 비구니선원 천진암 개원

고불총림 백양사의 비구니 선원인 천진암(주지 정안) 낙성 및 선원 개원법회가 지난 2일 봉행됐다.

21회 타종을 시작으로 봉행된 법회에는 수산 지선스님등 산내 스님들, 김홍식 장성군수, 국창근의원과 신도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천진암은 고려 충정왕때 각진국사가 창건한 암자로 현재 8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논산훈련소 장병 4천여명 수계법회

육군 논산훈련소 호국법당 연무사(법사 경연수)는 지난 10월27일 4천여명의 군훈련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화스님(법륜종 종정)을 계사로 장병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서 일화스님은 "오늘 수계받은 불자장병들은 불자오계를 잘 지켜서 몸을 건강히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지부 창립법회

(사)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심업) 창립법회가 지난 3일 조계종 대구 대승원(주지 만권)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무공스님, 예민해 경북대의대학장 장기기증신청자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해 중생구제를 위한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발원했다.



맹란자씨 '빈배에 가득한…' 출판회

맹란자씨(동양서숙 대표)의 첫 수필집 〈빈배에 가득한 달빛〉(우리출판사 刊) 출판기념회가 지난 5일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목동청소년회관 명우스님, 범조스님, 우리출판사사장 무구스님과 고은 시인, 동국대 연기영교수, 수필산책문학회 회원, 송현수필문학회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호남 고불총림 방장 서옹 대종사 참사람 결사 특별법회

오늘날 인류문명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다양하고 거대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팽창하여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로인해 기존의 종교, 철학, 도덕, 문화, 예술 등의 모든 이성적 가치체계가 전도되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첨단의 과학문명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인간정신의 타락과 자연환경의 오염파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찍이 인도의 마명, 용수를 거쳐 달마스님에 이르러 확고히 사상적 체계를 이룬 "참사람" 즉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항상 강조해 오신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으로 주석하고 계시는 西翁大宗師께서는 세계사적으로는 인류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불교사적으로는 부처님께서 自覺하신 人間本然의 "참사람"정신을 실천하여 침체된 불교에 생명을 불어넣고 황폐화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참사람"結社를 주창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스럽고 역사적인 結社에 뜻있는 강호제현의 동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佛紀 2540년 11月

행 사 일 정

▷ 일 시 : 佛紀2540年(1996년) 11月14日 ~ 16日 (3일간)
▷ 장 소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대법당

▷ 11월 14일(木) 오후 3시 ~5시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 : 법회위원장 지선 스님(백양사 주지)
축사 : 서 돈각 박사(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법어 : 서옹 대종사(고불총림 방장)
- 임 제 록 -
강연 : 정병조 박사(동국대 교수)
- 현대인의 보살도-
사홍서원

▷ 11월 15일(金) 오후 3시 ~5시
법어 : 서옹 대종사
- 임 제 록 -
강연 : 종성 스님(고불총림 부방장)
- 禪과 참사람 -

▷ 11월 16일(土) 오후 3시 ~5시
법어 : 서옹 대종사
- 임 제 록 -
강연 : 권기종 박사(동국대 교수)
-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참사람)

고 불 총 림 방 장 서 옹 큰스님
부방장 종 성 스 님

위 원 장 : 지선 스님(백양사 주지)

상임위원장 : 시몽 스님(법화사 주지)

상임부위원장 : 성오 스님(종회 위원)
다정 스님(문성암 주지)

위 원 : 백양사 본·말사 주지 및
서옹 큰스님 문도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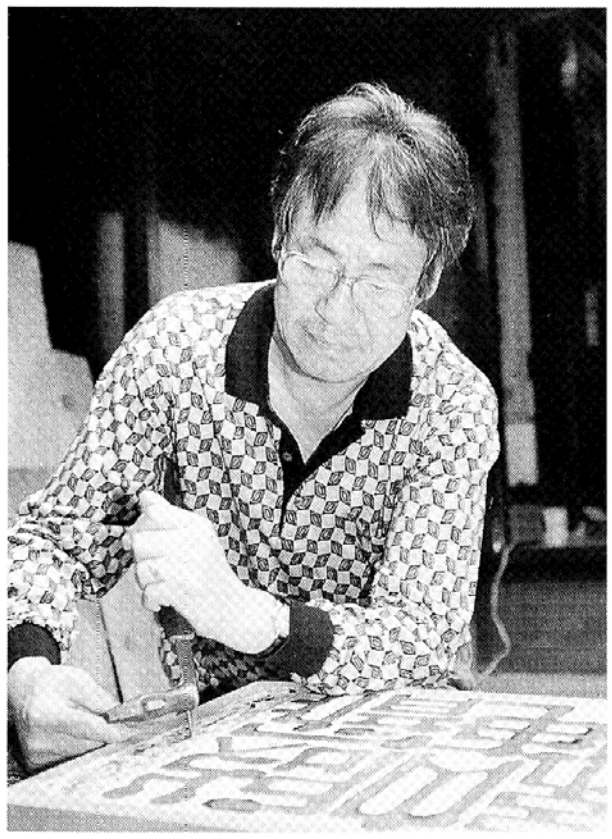
참사람結社 법회 위원회 委員長 知訣 合掌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白羊寺 古佛叢林 ☎ 0685)92-7502
연락처 : 서울 백운암 ☎ 815-3391, 불교문화센터☎703-0108

"하루아침 성취 있을수 없어요"

산문밖의 禪

각자匠 오옥진 씨



사찰에 가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의 현판들이다. 사찰의 전경을 미처 보기도 전에 눈길을 사로잡는 이 현판들은 그 자체에서 사찰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명패격이다. 잘된 현판은 마치 빼어난 미인처럼 한없이 쳐다보게 만든다. 이 현판들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잘 쓴 글씨지만 글씨의 기품을 한결 높이는 것이 바로 글씨를 어떻게 관각했느냐 하는 각(刻)솜씨다.

화엄사 송광사 금산사 선학원 불국사 동국대정각원 경국사 칠장사 등 수많은 유명사찰의 대웅전 일주문 명부전 주련 등을 관각한 이가 최근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은 철재(鐵齋) 오옥진씨(63)다. 지난 11월 1일자로 목각장(木刻匠)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로 신규지정되었고 오옥진씨는 그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40년 관각에 쏟은 생애가 드디어 인간문화재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각필은 재창작입니다. 원 글씨의 비백을 적절히 조절해 새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도장을 파듯이 기계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글자체를 목판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하고 글자간의 균형도 맞춰야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즉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또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앞서 글자 하나하나의 완벽한 아름다움도 추구해야 하는 작업이지요."

쉬지않고 한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담담하면서도 투명한 마음과, 작업하는 자체를 즐거워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에서 제작되어 나온 작품은 보면 볼수록 좋다. 그는 글씨의 관각을 '소설의 영화화'에 비유했다. 아무리 소설이 훌륭해도 영화로 감동을 주기 위해선 각색이라는 또다른 작업이 훌륭해야 하듯 관각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까지 그는 팔만대장경을 보러 다섯번이나 해인사에 다녀왔다. 판전에 들어서면 선조들이 대장경을 새기면서 기울였을 그 초인적인 정성에 숨이 막힌다. 마치 한사람의 솜씨인듯 가지런하고도 단아한 관각솜씨는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온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키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지극한 불심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경지임을 느끼게 한다. 하나가 된 민중들의 구국화합의 혼이 불어넣어진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관전을 나올때면 "마음의 눈으로 가늠하고 혼이 들어간 칼끝으로 새긴 작품"이라는 중얼거림이 저절로 나오게 마련이다.

자신이 만든 수많은 작품중 〈훈민정음〉〈농가월령가〉〈고려가요〉〈부모은중경도설 14면〉등을 가장 아낀다. 특히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기념관에 영구전시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의 대표작이다.

"글자 집착보다 균형 고려하며 칼끝에 혼 넣어야"

판각은 목공예·서예·한문 종합예술

4대째 가업…현대 명필보 작업중



◇오옥진씨가 서각한 화엄사 현판.

"기예란 것은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욕심이 앞서면 안돼죠. 목공예를 다른데서 배우고 온 사람들이 여기(餘技)로 각자를 배우러 와서는 일년도 안 채우고 다 이룬듯 나서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다보면 자신보다 남이 먼저 그 노력의 결과를 인정해 주게 마련이지요. 더구나 각자(刻字)는 목공예기능뿐 아니라 서예 한문 등에도 달통해야 하는 종합예술이기에 다른 것보다 성취가 더 어렵습니다."

전통각자는 글자를 새기는 방법에서부터 독특하다. 다른 목판인쇄나 목판화는 칼을 손으로 잡고 하는데 반해 각자는 칼을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지만 일단 숙련되면 훨씬 힘이 덜 들고 깔끔하게 처리되는 이점이 있다. 수십년 이 일을 해온 오씨의 손이야말로 칼과 더불어 살아온 이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왼쪽 손가락 2개는 신경을 다쳐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또 오른쪽 집게 손가락은 1㎝쯤 잘려나갔다.

서각을 부탁하는 사람중엔 무조건 비싼 나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각하는 나무도 그 쓰임새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인데 돈만 많이 주면 좋은 것이 나오는 줄 알고 떼를 쓸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현판용으론 은행나무, 잣나무, 춘양목 등이 좋고 인출용으론 박달나무 벚나무 배나무 등이 좋아요. 또 나무도 충분히 말려 써야지 덜 말리면 나중에 뒤틀리거나 금이 가게 마련이지요." 잘 말린 나무에 정성드려 새긴 사찰현판은 어제 만든듯 생생하게 살아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을 본다.

증조부때부터 4대를 이어온 오옥진씨에게 이제 장남 윤영씨(36)가 후계자로 맥을 이을 예정이다. 그의 집에는 '혼천재(混宗齋)'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원천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난 뒤에야 흘러간다'는 뜻이다. 선조대부터 계승돼온 가업이 끊임없이 이어져 소중한, 국가의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계승되고 발전되길 원하는 오씨의 염원이 들어있는 글이다.

70년전에 정도영선생이 수전(手鐫)으로 〈해동명가필보(海東名家筆譜)〉6권 1질을 목판본으로 펴낸바 있다. 고조선부터 근세까지 우리나라 명필들의 글씨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것을 영인 축소하여 지난 58년 문헌편찬회에서 단행본으로 펴낸 것을 오옥진씨가 한 질을 소장하고 있다. 〈해동명가필보〉 이후 현재까지의 작품들을 모아 〈근역한묵(槿域翰墨)〉이라는 제목으로 목판본을 펴낼 계획이다. 이에는 김충현 김동리 서세옥씨등 서예가 학자 문인 정치가 화가 등을 비롯 경봉·석주스님 등 당대의 인물 2백인의 빼어난 글씨 그림 등을 목판으로 새겨 넣을 예정이다. 한 10년을 잡고 있다. 이 일은 각자장 오옥진의 필생의 역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경숙 기자

아미타불 염불로 공부하는데…

문 저는 아미타불 염불공안을 공부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는 공부를 하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하고 막연하군요.

〈윤기중 · 서울 양천구 목동〉

답 수행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내가 한다 내것이다 하는 아상입니다. 누구라도 사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아들이 되었다가 동생이 되었다가 친구도 되고 부하도 되고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때의 나를 딱 집어서 어떻다라고 고정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있지요.

세상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한순간이라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고정할 것은 없는데 그러면서 삼라만상은 여여하게 잘도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비유로 가끔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마치 저 바퀴가 구를때처럼 심봉은 돌아가는 데에다 힘만 넣어줄뿐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 한 것은 이름해서는 각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바퀴와 심봉이 둘이 아니기에 뭉뚱그려 주인공!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 육신 움직이는 것과 마음 쓰임새를 보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니 사량분별해서 내것이다 네것이다 좋다 싫다 따지지말고 절로 여여한 주인공 자리에 턱 놓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그렇게 맡겨놓아 쉬라는 것입니다. 행주좌와 일체는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자리에 되돌려 놓고 지켜보는게 관입니다. 그렇다고 지켜보는 자와 지켜볼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놓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놓고 지켜보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 사량의 나는 그냥 놓고 지켜볼 뿐이다, 그러면 체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오묘한 도리를 맛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궁금하다 하는데 답답한 것도 궁금한 것도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답답하게 한 것도 주인공 너,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이니 네가 해결하라!'는 생각으로 놓아버리세요.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될대로 되어라 하고 방치하는게 아니라 모든게 다 주인공 자리로 나고드니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믿음 하나를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관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일체 경계에서 쉴 수 있는 무심관을 터득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요

문 마음공부를 하는 목적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어떤 종교에 속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사랑을 하려거든 참사랑을 하라하시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안진규 · 호서대학교〉

답 어머니의 자식사랑이 가장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도 말로써, 몸으로써 표시해야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또 어머니의 자식사랑이라해도 진정한 사랑이 되자면 믿고 맡기는 한마음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식이 밖엘 나갔는데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혹시 무슨 탈이라도 났는가 싶어 안절부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럴때에 '그래, 아무 탈없이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도 너 주인공만이 할 수 있지!' 하고 믿고 맡기는게 참사랑입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되어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콱시밀리를 보내든지 전화를 걸든지 해야 저쪽까지 통해서 잘 돌아갈게 아닙니까? 그런데 문 밖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애를 태운다면 막상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안종은 소리부터 하게 됩니다. 정도가 좀 지나치다싶으면 '너 정신이 있니 없니'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또 이 공부를 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만 본래 누구에게나 자유자재의 권리가 주어져 있고 본래부터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구속해놓고는 새삼 자유를 찾겠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오신통을 갖춘 시스템이라고 해도 됩니다.

내 속에 팩시도 있고 탐지기도 있고 무선통신, 레이다, 망원경,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만 연결됐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갑순이 갑돌이와도 다 연결이 되어있고 날아가는 새나 풀 뜯는 소, 저 돌 장승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만물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된 장치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본래부터 자유이지요.

내 몸뚱이 오장육부로 다 통하고 지신 목신들하고도 다 통하고 소를 건지려면 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그렇게 자유자재합니다. 그래서 다 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통하니 어느때 어느 장소에 '나'라고 할 존재가 따로 있지 않다 이거죠.

그냥 공 아닙니까? 그러니 부자유할 게 본래 없죠. 앞서도 말했지만 본래 자유인데 스스로 관념의 감옥을 만들고 아상을 지어 구속하고, 허구헌날 그렇게들만 하고 사니까 자유를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자유인줄 아는게 진정한 자유요 이 공부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된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21세기 대학생포교의 전기마련과 대불련 혁신을 위한 후원과 사은의 밤

후원의 밤에 모시는 글

"63년 창립이후 34년동안 한국불교의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중심의 현장에서 불교를 젊게 그리고 사회화 시키는 최일선에서 흔들림없이 너무나 큰 역할을 담당했던 진리의 벗들, 대불련!

관심과 지원이 소홀했지만 한국불교 현대사를 온몸으로 이어온 대불련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기 2540년 11월 일

후원의 밤 추진위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성 타
대불련총동문회장 명호근

■ **일 시** : 1996년 11월 1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한국일보 송현클럽

추진위원회 기구표

증명
월하, 관응, 서옹, 석주, 원담, 혜암

고문
월주, 고산, 광덕, 녹원, 도문, 락혜, 무비, 무진장, 법정, 운덕, 월운, 월탄, 일타, 지관, 철웅, 초우, 혜초, 고은, 서돈각, 이기영

지도위원
광우, 도관, 도영, 도후, 목산, 무공, 법장, 법조, 법타, 벽파, 보각, 선용, 설봉, 설정, 설조, 성오, 성우, 성해, 송산, 암도, 오현, 원산, 월암, 정락, 중열, 종하, 중원, 지선, 지하, 천운, 태능, 현고, 현근, 현해, 혜광, 혜산, 혜정, 홍파, 권익현, 김태호, 목정배, 박상규, 박완일, 서석재, 송석구, 안동일, 정상구, 조해녕, 주양자, 오세환, 한정섭

상임위원
각현, 능관, 도법, 동광, 명진, 무상, 무여, 법등, 법륜, 법성, 법현, 부동, 성문, 성열, 수완, 여연, 영담, 원종, 원택, 원학, 원행(안국사), 원행(월정사), 원혜, 인행, 일면, 자승, 장곡, 장윤, 정우, 정휴, 종광, 종림, 지광, 지만, 지원, 지홍, 진관, 청하, 평상, 평중, 현기, 현담, 현응, 현장, 현진 혜산, 혜창, 화범, 효림, 고순호, 고준환, 곽만연, 권기종, 권오현, 김광복, 김기원, 김묘주, 김선근, 김윤권, 김재일, 김종대, 김종호, 김태영, 김춘송, 김홍국, 남광수, 남지심, 류진수, 박세일, 박진완, 박찬주, 백남석, 성기태, 송병욱, 송성선, 신상철, 신석봉, 신호철, 양근하, 여익구, 오형근, 옥치담, 윤세원, 윤제철, 이각범, 이병걸, 이상기, 이상번, 이상조, 이선행, 이순규, 이영치, 이용부, 이윤우, 이장백, 이채영, 임동주, 장미자, 전보삼, 전정우, 전찬규, 전창렬, 정의행, 정인권, 정한용, 조용길, 조항원, 천우성, 최동수, 최인석, 추미애, 하장춘, 현익채, 홍사성, 홍성복, 홍순도, 홍의룡

집행위원장
최 연

집행위원
강동훈, 강명호, 강성식, 강태진, 고희경, 공훈배, 궁인창, 권상혁, 권태정, 김경호, 김관태, 김남수, 김대광, 김동흔, 김범정, 김봉래, 김연호, 김영국, 김영헌, 김용길, 김원우, 김유신, 김인규, 김종찬, 김지형, 노태훈, 도필선, 류덕산, 류창무, 민정희, 박미선, 박상필, 박선애, 박용규, 박용환, 박재현, 박정규, 박종현, 박청숙, 박추자, 박홍식, 박형민, 박호창, 박홍수, 박희승, 배민애, 배재민, 배춘상, 백용구, 백혜은, 백효흠, 변대용, 사유선, 서동석, 서정숙, 설동철, 손상훈, 송연택, 신규탁, 신원식, 심정섭, 안삼화, 여태동, 오도선, 우성란, 유지원, 유정길, 유지호, 윤영희, 윤예중, 이광재, 이남재, 이병규, 이석심, 이영근, 이영기, 이영철, 이재원, 이주영, 이준엽, 이지범, 이학종, 이희선, 임병화, 장도연, 장성원, 장연조, 전대식, 전재성, 전형근, 정상환, 정선애, 정용학, 정웅정, 조병활, 조성렬, 주상환, 최승천, 최주선, 최철호, 하춘생, 한정갑, 허 권, 허정현, 현병근, 홍은미, 홍종표, 황태종 〈이상 가나다순〉

추진위원장 성타 · 명호근



◇한종만교수



◇효탄스님



◇최성렬교수

선불교 정토·밀교사상 융합

한국불교학회 15일 추계학술대회

선원·백장청규에 염불·주문등 명문화

"조동선 원리, 임제선·유학·도교와도 회통"

한국의 조동선史에서 설잠(雪岑) 김시습의 〈조동오위요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선원청규〉와 〈칙수백장청규〉에서 엿볼 수 있는 사상은 무엇일까.

오는 15일 동국대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주최 '제26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에서는 모두 8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종만교수(원광대 원불교학)의 논문 '설잠 김시습의 조동오위요해(曹洞五位要解) 연구'는 동산(洞山)과 조산(曹山)의 정편오위설(正偏五位說)의 기초에 서서 도융(道隆)과 자순(子淳)의 오위「서(序)」를 바탕으로 정편오위설과 격외선의 도리를 자유자재하게 융합시켜 정편오위설이 조동선의 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임제선과 융합하며, 또한 조동선이 유학의 '태극도설' 및 도교의 '참동계(參同契)'와 회통됨을 밝힘으로써 한국 조동선史에서의 새로운 조동선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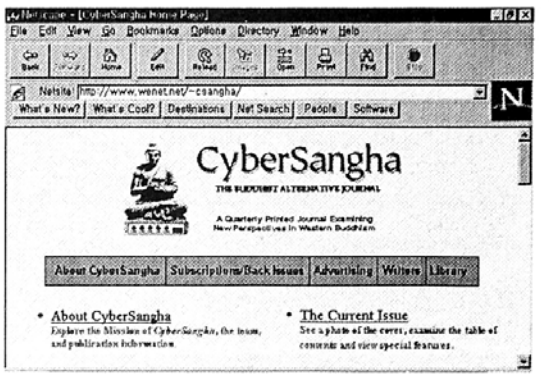
여기에서 한교수는 "설잠은 오위설 전체를 상즉의 원리와 '언어적 견해가 끊어져야 참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는 임제선의 격외선(格外禪)의 도리로 보았으며, 또 음양의 이치를 논한 '참동계'나 천지간의 이치를 밝히고 있는 '태극도설'의 원리는 상합상인(相合相因)해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조동선의 원리와 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효탄스님(동국대 강사, 역사교육)의 '선원청규(禪苑淸規)와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의 망승(亡僧)에 관한 고찰'은 '선원청규' 권6의 '망승'조(條)와 '칙수백장청규'의 '능엄회'의 분석을 통해 송대 선종에서의 정토수용과 밀교수용을 밝힘으로써 선종이 종합불교적인 성격을 띠며 발전해 나갔음을 설명하고 있다.

'선원청규'에 염불의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는 점과, 장례의례가 실려있는 '망승'조가 '염송'의식으로 이뤄져 있는 등 정토수용의 사상을 추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칙수백장청규'내에서 정(定)을 닦는데 힘을 돕는 주문인 '능엄주'가 망승의 행지에 자주 염송되고 있었던 것은 밀교사상의 수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다.

최성렬교수(조선대 철학)의 논문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중 요간절요(要簡節要)의 체계에 대한 연구'는 전3권으로 구성된 지눌의 〈화엄론절요〉중 권1에서 권2중반까지인 '요간절요'를 화엄경의 교리적 특징 등 모두 십문(十門)으로 구분해 그 내용을 살피고 전체적인 체계를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한명우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사이버상가

전자잡지·불교관련 도서 추천 「백미」

미국불교는 다민족 사회라는 말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불교가 뒤섞여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티벳·일본·중국·한국불교 등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 역시 각각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사이버상가'는 미국불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사이트로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사이버(Cyber)란 '가상'(假象)을 뜻하며 빠알리어인 상가(Sangha)는 '모임·공동체·승가(僧伽)'를 의미하고 있다.

그레이 레이(사이버상가 편집장)씨가 "지금껏 큰 스승을 모시지 못한 미국불교의 취약성을 반추하고, 현재 미국불교계에 포진해 있는 각국의 불교를 이해하고 적극 수용해 미국불자의 내적 유대감을 돈독히 하기 위해 사이버상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 사이트에는 △전자잡지 △추천불교도서 △미국불교계 소식 등의 다양한 교육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중에서 '전자잡지'와 '추천불교도서' 등이 사이버상가의 백미.

전자잡지는 현재 '96년 여름호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 여름호에는 '불과 물'(Fire and Water), '꿈에서 깨어나라'(Waking Up From the American Dream) 등의 미국인의 불교적 자성을 요구하는 글 등이 실려있다.

또 추천불교도서는 '사이버상가' 편집위원 9명이 추천한 불교도서 총24권이 평론·저자소개·가격 등의 정보와 더불어 소개되어 있다. 이들 추천도서 중에는 한국불자에게 잘 알려진 틱낙한 스님(베트남)과 쵸드론 스님(미국)의 신간도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wenet.net/~csangha/' 〈욱〉

"유적발굴 '돌팔이'에 맡긴꼴"

이선복교수, 고고학 대회서 '발굴실명제' 제안

"고도의 전문적 수련을 거친 전문의가 아닌 돌팔이 무자격 의사가 외과수술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국민의 보건을 염려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적발굴을 빗대 이선복교수(서울대)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20회 한국그고학 전국대회'에서 관계당국과 고고학계의 자성을 촉구하며 던진 자조섞인 우려의 소리다.

이교수는 매장문화재 관리제도의 미비점은 전문인력과 투자부족이 함께 상승작용을 하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고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이들이 50%도 되지않는 문제점과 각종 형태의 매장문화재 관리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모든 형태의 발굴계약에 작용할 수 있는 문화재학술조사예규(가칭)를 만드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보완과 발굴실명제 및 표준품셈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65년부터 91년까지 개발된 4억3천4백여만평 토지에서 구제조사(개발로 훼손될 유적지를 발굴조사 하는 것)는 3백19건에 불과해, 급속한 개발로 많은 유적이 파괴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제시됐다. 〈우〉

"석굴암 본존불 조형원리 신라불국토사상 함축 표현"

강우방씨 15년연구 '석굴암도상해석'서 주장

'석굴암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미가 응축된 최고의 걸작이다.' 15년간의 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했다.

강우방실장(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은 최근 발간된 〈미술자료〉 제57호(국립중앙박물관 刊·사진)에서 '석굴암 불교조각의 도상(圖像)해석'(제4부)을 통해 본존상은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도가 서축이라면 신라는 동축'이라는 발상에 바탕을 둔 신라불국토사상을 완벽하게 조형화했다는 본존의 불교이론적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지난 87년부터 몰두해 온 석굴암 연구를 완성했다.

석굴암의 기하학적 원리를 찾아내는데서 출발한 강실장의 연구는 제1부 '석굴암에 응용된 조화(調和)문'에서 비례의 원리와 연기사상이 일치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석굴암의 건축원리를 찾아냈다.

제2부 '인도의 비례이론과 석굴암 비례체계에의 적용'에서는 인도의 비례이론을 응용한 석굴암은 당시 세계수준에 걸맞는 과학과 미술이론이 녹아 들어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석굴암 본존에 대한 수리적·건축이론적 조명을 이뤄냈다.

제3부 '석굴암 불교조각의 도상적 고찰'은 본존을 비롯해 석굴암 안에 조각돼 있는 보살상, 십대제자상, 십일면관음보살상 등을 불교이론을 토대로 해석해 냄으로써 석굴암이 담고 있는 불교사상연구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석굴암이 담고 있는 불교사상의 내용을 캐낸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석굴암은 셰익스피어나 괴테는 물론 막고굴을 비롯한 중국의 어떤 석굴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문화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15년 고행끝의 해탈과도 같았다. 〈우〉

"원효스님 경산 유곡서 탄생"

저술활동 중심무대는 분황사 추정

원효학연구원 학술대회서 밝혀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 주최로 열린 '원효학 연구 제1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원효의 탄생지와 저술도량에 대한 집중조명이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원효의 탄생지는 현 경북 경산시 유곡동 유곡마을의 도들양지 지역이며, 저술도량은 분황사임이 틀림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론 이와 유사한 주장은 향토사학자들과 학계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이들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함께 공식적인 학설로 대두시켰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봉춘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는 '원효의 탄생지에 관한 고찰'에서 〈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元曉不羈)'에 원효가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는 압량군(押梁郡·지금의 장산군)불지촌(佛地村)은 지금의 경산시 유곡마을에 속하며, 또 〈경주지(慶州誌)〉의 원효의 아들 설총이 '유곡에서 태어나고 여천에서 성장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설총이 출생한 유곡동에 원효의 본가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분황사와 원효성사와의 관계'에서 △〈삼국유사〉에 원효가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를 찬술하다 절필했다는 기록(절필을 그동안 많은 저술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함)과 △설총이 아버지의 진용(眞容)을 입적한 혈사(穴寺)에 모시지 않고 분황사에 모셨다는 점 등을 볼 때 분황사가 원효의 저술도량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발해 다라니경' 日서 발견…9세기 교류史料

송기호교수 교토 石山寺 소장품사진 국내 입수



◇〈불정존승다라니기〉 물경 말미의 발문 가운데 일부.

발해가 당나라는 물론 일본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경전사료가 처음으로 공개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정존승다라니기(佛頂尊勝陀羅尼記)〉라고 이름 붙여진 이 다라니경은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직접 전한 불경으로, 발해를 통하 문물이 일본으로 전달됐음을 확인해 주는 귀중한 실증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송기호교수(서울대 국사학)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정존승다라니기(佛頂尊勝陀羅尼記)〉의 사진을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도움으로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이 다라니경은 일본 교토 근교 오쓰(大津)에 위치한 이시야마지(石山寺)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물경 마지막 두쪽의 발문(跋文)에는 '정관삼년…발해국사…이기정 지래지(貞觀三年…渤海國使…李居正 持來之)', 즉 '일본 정관 3년(861년) 발해 사신 이거정이 가지고 일본으로 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발해 사신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거정의 이름 앞에 '영질대부정당성춘부 정삼위 상중랑장 균공왕현 개국(英秩大夫 政堂省眷部 正三位 上中郎將 均谷枉縣 開國)'이라는 관직명이 적혀 있어 지금까지 미흡했던 발해의 관직체계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해에서 건너가 현재까지 일본에 남아있는 유물로는 이번에 공개된 〈불정존승다라니기〉와 같은 점이 소장하고 있는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일본 황실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발해 관청에서 일본 관청으로 보낸 공문서 등 3점 뿐이며, 국내에는 발해와 일본의 교류에 대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다.

한편 〈속일본기(續日本記)〉와 일본 역사책, 나무판 위에 글자를 새긴 목간(木簡) 등에는 발해와 일본 사이에 35차례에 걸친 사신 왕래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거금도, 진리의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보조국사께서 창건하신 천년 고찰입니다.
스님의 정혜쌍수의 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수련회 일정 "3박 4일"(금~월)

차수	기 간	연령	대상	모집인원
1	96년 12월 6일 ~ 12월 9일	20~60대	일반인	30명
2	96년 12월13일 ~ 12월16일	〃	〃	〃
3	96년 12월20일 ~ 12월23일	〃	〃	〃
4	96년 12월27일 ~ 12월30일	〃	〃	〃
5	97년 1월 3일 ~ 1월 6일	〃	〃	〃
6	97년 1월10일 ~ 1월13일	〃	〃	〃
7	97년 1월17일 ~ 1월20일	〃	〃	〃
8	97년 1월24일 ~ 1월27일	〃	〃	〃
9	97년 1월30일 ~ 2월 1일	〃	〃	〃

※ 각자 신청서를 만들어 이름, 주소, 직업, 전화번호, 종교, 수련법회 유·무, 원하는 차수 참가소견을 적어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 아 래 —

- 수련내용 : 참선·선체조·수심결강의, 산행
- 수련지도 : 일선스님
- 회 비 : 5만원
- 교통편 및 위치 : 서울 - 광주 - 녹동 / 서울 - 여수 - 녹동 / 부산 - 녹동 ─ 금 진 (배로 20분거리)

● 장 소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74 송광암
● 연락처 : 0666)843-8488 FAX)842-7307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금강경독송회** 엮음

1부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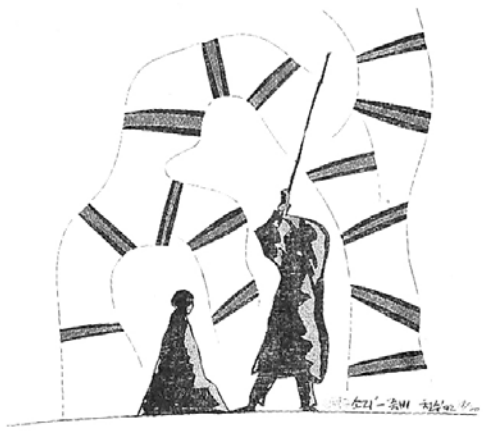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값 7,500원

그림자 없는 행위 '열반 도달'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㉜ 〈끝〉

불교란 무엇인가 ⑤



◇엄똥한 대답을 하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논리를 넘어선 곳에서 삶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이 선불교의 특징이라고 파악한 보르헤스는 이 때문에 인류에 가장 숭고한 종교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철수씨의 판화 '소리, 죽비'.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을 가져와라" "못찾겠습니다" 삶의 본질 직시하면 우주도 '꿈'

"불교는 인류 구원의 문화유산 모두 정신의 자양분 삼으십시오"

우리는 늘상 주체·객체, 원인·결과, 논리·비논리, 이것·저것의 이분법적 구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 편가름을 넘어서야 합니다. 선사들은 논리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제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논리를 초월할 때 비로소 도달하는 진리를 깨우치게 유도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붓다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승은, "뜰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효과를 겨냥한 아주 비논리적인 대답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보리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었습니다. 스승은 "마삼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은 사실은 즉각적으로 영감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대신 때리거나 고함칠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물음에 대하여 스승은 흔히 폭력으로 대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리달마에 대해, 지금은 거의 전설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벽참선 하고 있는 보리달마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 제자되기를 청하며 그의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왼팔을 끊어 자신의 단심(丹心)의 증거로 스승께 올렸습니다. 그로서는 심사숙고 끝에 그런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스승은 그것마저도 환영(幻影)에 속하는 물질세계의 일이므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를 불러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네 마음을 가라앉혀주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제자는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못찾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에, 제 아무리 마음을 찾아도 만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즉각 진리를 깨쳤습니다. 그는 자아란 존재치 않는다는 것과 모든 것이 실체를 결여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선불교의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불교처럼, 신앙을 구속하는 교리를 표명하지 않는 종교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불교를 나와 무관한 타문화로 볼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는 사람만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데, 그 생각이란 우리의 죄와 그 속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바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서구인을 가장 사로잡는 테마인 죄의식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幻影)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불교는 우리 삶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제가 불교승이라면 이 순간 이제 막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이전의 삶은 모두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 시간 이전의 모든 우주사(史)도 꿈에 불과합니다. 선의 세계는 미묘한 지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아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거나 나는 행복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반이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붓다 자신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붓다는 성스러운 보리수 아래서 열반에 들고난 뒤 그냥 계속 앉아만 있었던게 아니라 수십년간 중생들과 어울리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열반에 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말해, 우리들의 행위가 이제 더이상 그림자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 하나하나는 업(業)이라는 정신적 그물을 짜나갑니다. 우리가 열반에 도달하면 우리들의 행위는 이제 더이상 그림자를 남기지 않게 되고, 우리들은 자유로와지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게되면 도무지 선과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서구에서 불교가 일으킨 반향의 상당부분은 '니르바나'라고 발음되는 이 아름다운 말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니르바나라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이 꺼지는 것 혹은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도 니르바나에 이르면 욕망의 불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히 열반이란 용어는 큰 소멸, 즉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어느 불교학자가 지적하기를, 붓다 당시의 인도 물리학에선 지금과는 달리 불이 꺼져도 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붓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더라도 그 불은 없어지는게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할 뿐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니르바나가 단순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속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초월적 경험을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로 나타냅니다. 그들은 포옹, 장미, 포도주 등으로 초월자와의 합일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열반은 그런 비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열반은 종종 폭풍우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안전하고 단단한 땅인 섬으로 비유됩니다. 혹은 높은 탑이나 정원으로 비유됩니다. 그것은 사념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불교는 그야말로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동안 불교에 몰두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불교이야기는 박물관 중에서 유물 한 점을 보여드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게 불교는 단순한 한 점의 유물이 아닙니다. 불교는 저에게 있어 구원의 길입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수억의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이며 우리 모두가 정신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인류의 숭고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밤 이 소중한 주제에 대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윤 경 원 〈코레스코 대표〉 〈下〉



지난 93년 나는 평생을 잊지 못할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우리회사가 사이판에서 한 호텔 공사를 맡아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서 2차대전때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 다섯구가 발견된 것이다. 현지의 법에따라 현지 공사관계자들이 알아서 처리를 했지만 나는 왠지 께름칙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현지로 가기로 예정된 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에 잘 다니는 진관사를 찾아갔다. 총무스님께 나의 심정을 말씀드렸더니 "마침 오늘이 지장기도 입재일이니 그 무주고혼을 위해 기도에 동참하라"고 하셨다. 나는 '이것도 인연이라면 큰 인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장기도에 동참키로하고 '2차대전시 사이판지구 전몰 무주고혼 신위'라는 위패를 단에 올렸다. 국적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50여년의 저편에서 전쟁을 치르다 허망하게 죽어간 사나이들. 그들이 하필이면 내가 주관하는 공사현장에 그 앙상한 주검을 드러낸 것은 무슨 인연일까를 생각하며 입재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아파야 했다.

그날밤 나는 사이판행 비행기를 탔고 어느날보다 염주를 굴리는 손이 뜨거웠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과 현지의 인부를 다 모아 그 무주고혼을 위한 천도재를 지냈다. 물론 스님이나 법사님도 없는 약식의 천도재였지만 참가자들의 마음만은 간절하고 지극했었다. 나도 그랬지만 직원들이 한결같이 마음이 개운하다고 했다. 그 원한의 무주고혼들이 분명 왕생극락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나는 20년만에 한 친구를 만났다. 오래동안 사이판에서 살아온 그 친구를 그렇게 여러차례 사이판을 다녔어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날 만난 것이다. 또 몇달 후에는 사이판의 우리 영업소 앞으로 대형 국도가 건설되는 복덩이를 안을 수도 있었다. "무주고혼을 위해 기도를 하는 마음이 지극했으니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라던 진관사 스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는 모든 즐거운 일을 부처님의 가피라 믿는다.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여긴다.

경영현장에서의 무수한 경험은 나에게 많은 교훈으로 남는다. 부처님을 믿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사심없이 진실된 믿음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니겠는가.

내가 주도해서 일군 업체라고해서 내것일 수는 없다. 회사란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뛰어 일군 것이므로 직원 공동소유물인 것이다. 다만 잘못된 일에 대한 최종의 책임자로, 어떤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갖는 책임자로 내가 서 있을뿐이다. 나는 이런 경영관을 부처님에게 배웠다. 그리고 책임자로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께 그 답을 묻는다. 내가 삼보에 귀의했기 때문이다.



치악산콘도를 짓기전,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위해 땅을 보러 가던 날은 눈이 많이 내렸었다. 원래 눈을 좋아하는 나는 뭔가 일이 잘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소개인과 함께 간 곳이 구룡사와 가깝다는 사실에서 나는 이미 땅을 매입할 인연이라는 믿음마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소개인을 다짜고짜 구룡사로 끌고 갔다. 함께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걸어 나왔다. 물론 구룡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치악산콘도 건설계획을 고했고 '허락'까지 받았음을 소개인은 알 길이 없었으리라.

내 주머니 속의 염주가 닳아 가는만큼 세월의 무상도 크다. 내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 사이판에 절을 짓는 일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살지만 아직 포교당하나 없는 곳에 자그마한 도량을 짓고 싶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해도 이런 소망을 위해 조금씩 인연을 키워가는 것이 불자로 살아가는 보람일 것이다.

"경영비법 부처님 가르침서 찾아"

회사는 직원 공동소유…사이판에 사찰건립 소망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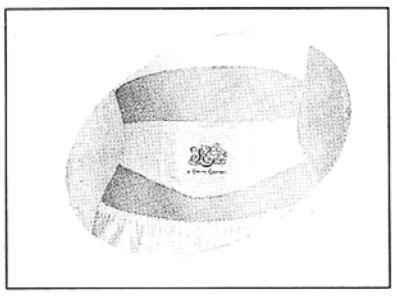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다시 푼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⑳

但是用口念呢 還是用心念呢
단시용구념니 환시용심념니
如果用口念 睡着了還有口爲甚麼不會念
여과용구념 수착료환유구위심마불회념
如果用心念 心又是個甚麼樣子 除沒處
여과용심념 심우시개심마양자 즉몰처
捉摸
착모
因此不明白 便在誰上發起 輕微的疑念
인차불명백 변재수상발기 경미적의념
但不要祖 愈細愈好
단불요조 유세유호

그렇다면 입으로 염하는가 아니면 마음으로써 염하는가?

입으로 염한다면 잠들었을 때라도 입은 그대로 있는데 어째서 염할줄 모르는가.

마음으로 염한다 하면 마음은 또한 어찌 생긴 물건인가? 도무지 붙잡을 수도 그려낼 수도 없으니 분명치 않다.

그러니 누구인가라는데서 가볍게 의심하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요

그렇다고 거칠게 의심해서는 안된다. 의념은 미세한 만큼 좋다.

隨時隨地 單單照顧定 這個疑念
수시수지 단단조고정 저개의념
像流水般不斷地看去 不生二念
상류수반부단지간거 불생이념

염불시수사자 최착중재개수자
其餘三字不過言其大者而已
기여삼자불과언기대자이기

힘이 붙거나 안붙거나 거기에 상관치 말고 번잡하거나 고요하거나 거기에 상관말라.

한마음 한뜻으로 사무치게 해나가면 그대의 공부는 좋아질 것이다.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이 넉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라는 데 있다.

그밖에 석자는 늘려 말한 것에 불과하다.

如穿衣喫飯的是誰 尙屎放尿的是誰
여천의끽반적시수 아시방뇨적시수
打無明的是誰 能知能覺的是誰
타무명적시수 능지능각적시수
不論行住坐臥 誰字一舉 便最容易發
불론행주좌와 수자일거 변최용이발
疑念
의념
不待反復 思量卜度作意才有
부대반복 사량복탁작의재유
故誰字話頭 實在是參禪妙法
고수자화두 실재시참선묘법

옷 입고 밥 먹는 자 누구인가 라든가 똥싸고 오줌 누는 자 누구인가라든가. 욕심부리고 성내는 자 누구인가 라든가, 능히 알고 깨닫는 자 누구인가 하는 것 같이 행주좌와를 막론하고 '누구인가'이 한 자를 들면 문득 가장 쉽게 의념이 일어난다.

그런 의념을 반복하거나 사량하거나 헤아리거나 생각을 지어낼 필요는 없다.

고로 누구인가라는 화두는 참으로 참선의 묘법인 것이다.

"흐르는 물 그치지 않듯 의념 일으켜 한마음으로 사무치게 공부하라"

若疑念在 不要動着他
약의념재 불요동착타
疑念不在 再輕微提起
의념부재 재경미제기
初用心時 必定靜中比動中較得力些
초용심시 필정정중비동중교득력사
但切不可生分別心
단절불가생분별심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오로지 저 의념을 되돌려 비춰보되 흐르는 물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할 것이요 딴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의념이 있을지라도 애써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만약 의념이 사라진다면 다시 가볍게 일으켜야한다.

처음 공부할 때는 고요한 가운데서 하는게 번잡한 곳보다 힘을 붙이기가 쉽다.

그러나 절대로 때와 장소에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不要管他得力 不得力
불요관타득력 부득력
不要管他 動中或靜中
불요관타 동중혹정중
爾一心一意的用 爾的功好了
이일심일의적용 이적공호료
念佛是誰四字 最着重在個誰字

但不是將誰字 或念佛是誰四字作佛號念
단불시장수자 혹념불시수사자작불호념
也不是思量卜度去我 念佛的是誰叫做
야불시사량복탁거아 염불적시수규주
疑情
의정
有等將念佛是誰四字 念不停口
유등장념불시수사자 염부정구
不如念句阿彌陀佛功德更大
불여념구아미타불공덕경대

다만 누구인가 혹은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라는 네글자를 가지고 부처님을 호념하듯 해서는 안되며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으면서 그냥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의정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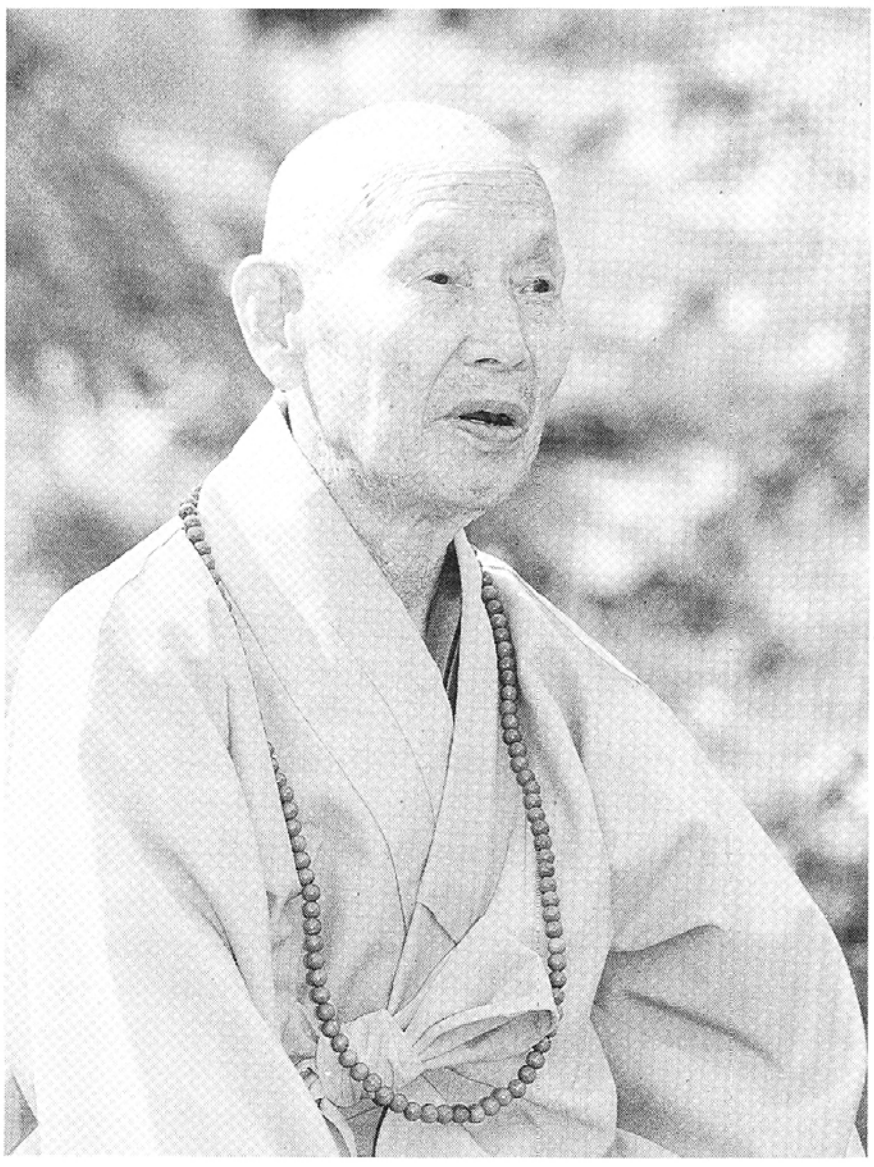
어떤 이는 '염불시수' 넉자를 가지고 염하는게 입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큰 공덕을 염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龍眼

★ 지 상 법 석

"마음속에 번뇌 많으면

혜경스님 〈봉영사 주석〉



약력
- 1912년 서울 生
- 27년 봉선사서 만허스님 은사로 득도
- 봉선사 강원 대교과 마침
- 4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남양주군 봉영사에서 주석

나는 여기 봉영사에서 57년째 살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한 절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조차도 의미있는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일들은 모두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처럼 여러 가닥으로 나눠지고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라 하는 것인데 이 진리를 모르면 중생이고 알면 부처입니다. 수행자 고타마시타르타가 생노병사의 모든 인연이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인류의 스승이 되셨듯이 말입니다.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건강도 다 인연의 그물 속에 있는 것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도 원인이 있어 우리 몸에 찾아 오는 것이고 그 인연이 다하면 떠나가는 것인지라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회복 되는군요. 문제는 이 몸에 병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을 잘아는 것
병의 근원 아는 것
병을 잘 다스리는 것
다시 발병 않게 하는 것
네가지를 성취하면
큰 醫王이라 하나니"

건강타령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사기행각을 하는 사람이나 엉터리 약장사가 판을 치기도 하는 것도 그만큼 건강이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몸에 병의 원인을 없애는 일에는 그리 적극적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인간의 육신에 병이들기 이전에 먼저 정신이 병든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문일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에 병의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처럼 나이든 사람은 한순간 정신을 놓치면 어김없이 병마가 쳐들어와 이 몸이 제집인양 놀아납니다.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즐겨 몸에 병마를 키우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식사습관을 잘 못 가져 병을 불러 들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자신도 고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병보다 스스로 병마를 키워 끝내는 병원신세를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몸에 병마를 키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도 하나의 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국토입니다. 그것도 불성을 지닌 위대한 국토입니다. 그 불성을 닦아 끝내는 불국토가 될 중생의 몸이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중생심은 그 국토를 대책도 없이 예토로 만들어 버려서 중생의 세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청정국토에는 청정한 사람이 살고 오욕의 예토에는 온갖 더러움에 물든 사람이 삽니다. 정토란 병이 없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정토로 가꾸는 일이 곧 내가 부처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없어야 부처를 이룰 수 있으니 말입니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병을 앓으므로 나도 아프다"라고 말 했는데 이미 그 경지는 보살의 경지이고 중생은 중생이어서 병에 신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병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몸에 병드는 것도 수행일 수 있습니다. 〈보왕삼매론〉에서는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병으로써 수행을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에 든 병마를 통해 진리를 배운다는 것인데 이 역시 여간한 경지로는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중생의 자리에서 중생의 병을 앓을지라도 그 병을 이기는 용기로 불성을 보고 다시는 그런 병이 찾아들지 않게 하는 지혜를 갖춤으로 우리는 한발 더 보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가 길었는데 〈잡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성취하면 큰 醫王이라 하나니, 네가지 법이란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세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네째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잘 새겨보면 우리 몸의 병에 대한 가르

국태민안과 남북통일기원

제6회 연등대법회 및 수륙대재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민족정신의 모체인 불교도의 원력으로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6회 연등대법회와 순국선열과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고 법광으로 죄와 화를 소멸시키는 수륙대재를 봉행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이 거룩한 법연의 자리에 무루 동참하시어 구원 겁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량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11월 일

제6회 연등대법회 행사준비위원회

대 회 장 백성오
수석부대회장 변춘광
봉 행 위 원 장 류진수

불기 2540년 11월21일(음10월11일) 목요일
낙동강하구언 을숙도

■ 행사내용
11:00~13:00 제1부 수륙대재
13:00~13:50 행운권 추첨 및 부대행사
14:00~15:30 제2부 대법회 및 유등행사
16:00~17:00 제3부 불자 노래자랑

■ 동참금 : 연등 1등 20,000원(1인1등)
영가위패 5,000원

■ 접수처 : 각 사찰 종무소 및 주지스님

◉ 주 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 주 관 : 제6회 연등대법회 준비위원회
행사문의 (051)867-0501

지상법석

반드시 몸에 병듭니다”

“우리몸은 불성지닌 위대한 국토 병이 없어야 정토로 가꿀수 있어요”

탐욕에서 병마 자라니 필요한것만 소유해야 근면성실하면 망념차단돼 몸·마음 건강 얻어

침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도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가지 법을 청정한 정신에 담고 있으면 병을 이기고 막는 것 뿐 아니라 진리를 깨우치는데도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새겨 두시고 모든 일을 네가지 법에 맞춰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병없이 청정한 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는 근면한 삶의 자세라 봅니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병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아니, 근면한 사람은 제 몸에 병의 인연을 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병의 원인을 제 몸에 만들어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는 스물여덟의 나이에 이 봉영사에 와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큰 병을 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자갈밭 개간하는 시간으로 하고 초조한 마음은 쉽게 악을 받아들입니다. 복잡한 세상 일수록 편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유야말로 마음의 편안함이 부처의 자리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수행자에게 일의일발(一依一鉢)로 살 것을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무소유가 마음의 번뇌를 쌓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뭘 가지려는 욕심에서 모든 악업이 지어지고 병마가 자라납니다. 뭘 갖지 못하는 애닯은 마음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소유란 정말 현실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다 풀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되 반드시 필요한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넘치면 병이 됩니다. 필요치 않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면 이미 탐욕인 겁니다. 탐욕의 선을 밟지 않고 적당한 소유를 하는 지혜를 가지면 무소유의 단촐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하지말아야 하고 욕심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하는 분별심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주인이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데 무엇이 누구의 주인이고 소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인연이 그렇게 닿아서 만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든 몇푼의 돈이 언제부터 여러분의 것이었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이겠습니까. 그 돈으로 뭘 사면 그 돈은 남에게 가고 사들인 물건이 대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지만 그 물건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설사 그 물건이 백년을 간다면 여러분은 그 백년을 살며 그 물건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것은 무상하고 그 무상의 인연이라는 그물 속에서는 주인도 예속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부자라는 생각도 망념인 것입니다. 그 망념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힐 뿐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맛은 바로 망념을 차단함으로 청정심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즐기며 사는 사람과 그런 맛이 있는 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다를 뿐아니겠습니까.

무소유를 실천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하는 속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벼르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봉영사 앞의 자갈밭에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깃들 수 있는 것은 봄과 여름동안의 땀과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수확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의 대가는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너무나 유명한 청규는 일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보다는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진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 “오직 그 일에만 마음을 두다가 마침내 마음자리마저 평온해져 일이 저절로 되어갈 때 도의 경지라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땅 파고 씨뿌리는 것만 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를 돌보던 직장에서 일을 하건 남을 위해 짐을 들어주건 다 중요한 일입니다. 일 속에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 지혜와 무소유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 그 일에 열중하면 그 순간이 참선이고 간경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선방이나 강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는 집착할 것이 많고 따지고 분별할 것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불사를 하는 스님들이 많고 불사가 원만히 이뤄져 회향을 하는 것은 절의 스님과 신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하고 정재를 모아 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일 자체가 청정하기에 결과도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세의 일은 청정을 따지기 이전에 물욕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의 비리가 문제되는 것도 공무 속에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당장의 일에서 초연해지고 오직 그 일에만 마음을 두다가 마침내 그 마음자리마저 평온해져 일이 저절로 되어가는 경지가 되어야 도의 경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도의 경지에서 일을 하면 집착도 없어지고 소유욕도 없어집니다.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하거나 못해서 애닯아 하지 않는 마음은 참으로 편안할 것입니다. 그 편안함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꾸는 일에 근실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편안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야하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그 자리를 속히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팔뚝을 잘라 달마에게 바치며 법을 구했던 혜가에게 스승은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혜가는 찾아도 찾아도 찾을 길 없는 마음을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했다”는 스승의 한마디 앞에 서 비로소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물욕으로 가리지말고 탐심으로 더럽히지 말고 근면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득 찾아낼 수 있는 자리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2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9

돈오와 양자도약

양자도약 발견후 불연속적 변화 인정

돈오믿어야 분별지 초월 속박 벗게돼

반야심경이 설하는 것은 ‘공’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사리분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하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까지 설한 내용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꿈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체득하지 못하는 이상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말로써 풀이하여 수긍하더라도 ‘공’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사실 시공간과 물질 모두가 물리적 진공에서 생겨났고 ‘아’라는 것마저 단순한 집착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체가 헛것이니 무슨 밝고 어두움이 있겠으며 생노병사가 있겠는가? ‘고집멸도’도 결국 집착에 불과한 ‘아’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지혜라는 것도 허망한 것을 풀이하는 허깨비 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시고공중…’이하 ‘…이무소득’까지를 말로써 풀이하고 이해하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지의 차원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별지로 이해하고 그친다면 남은 것은 허무밖에 없다. 허무를 뛰어넘으려면 분별지를 뛰어넘어야한다. 어떻게 분별지를 뛰어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말과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뛰어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선승들은 돈오와 점수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점수란 점차 닦아나가는 것이고 돈오란 일시에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차원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을 뜻하는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돈오이다. 속박상태에서 점수란 없다. 물론 정신적인 현상을 물리적 현상으로부터 추론하여 결론을 끌어내는 것에 무리가 있지만 정신-물질의 일원론을 받아들인다면 물리적 현상에서 돈오와 점수를 추론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일 것이다.

현대물리학이 탄생하기전 물리학자들이 자연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일지도 그렇게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지 하나의 현상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갑작스레 가속되어 속력이 시속 0에서 100㎞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 중간값인 10, 20, 50㎞ 등을 다 거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 경험에서 보는 것은 다 이렇게 점진적인 것이다. 그런데 입자-파동의 이중성을 발견한 후 물리학자들은 양자도약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물질은 92가지의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를 속박상태라고 부른다. 원자도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자와 원자핵은 모두 속박되어 있다. 이 속박상태에 있는 원자는 여러가지 상태를 갖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하므로서 생명의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물질의 변환을 나투고 있다. 그런데 이 속박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환은 모두 불연속적이다. 갑자기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예로 들면 1이라는 값이 중간값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100이라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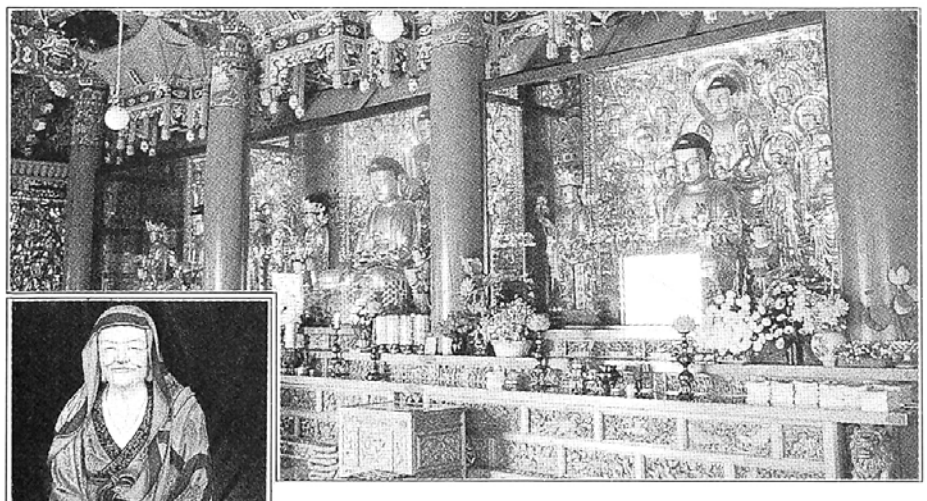
사람의 마음도 과거의 경험 받은 교육 등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다. 불교적인 표현으로 집착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집착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사람은 시공간내에 존재하면서 시공간적 변화를 바탕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 분별지란 시공간적 존재가 갖는 한정된 지혜이다. 따라서 분별지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승들은 돈오를 말했다.

반야심경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물리적 진공의 묘한 작용으로부터 ‘공’을 짐작하고 양자도약으로부터 속박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돈오뿐이라는 믿음이다. 돈오후 반야지를 갖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경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고 ‘시고공중… 이무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 이전 믿음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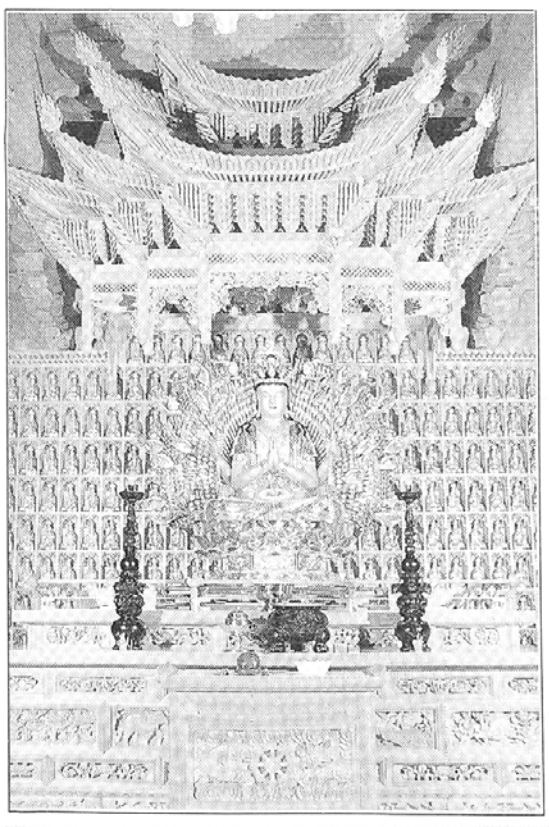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예성강 사공들



"상수선비 49재도 지내지 않는 것은… 우리 이 섬에서 떠나세"

상수는 갔다.

상수는 바다 한복판으로 떠나려 갔다.

그의 시신이야 여덟모골의 섬 보타락가에 닿아서 그곳의 관세음보살과 만나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다 버린 몸으로 연꽃처럼 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의 시신을 맨 작은 떼배 따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를 뛰로하고 대해 효영 명오가 탄 떼배는 파도 위를 재촉해야 하였다.

상수는 무육도의 수행을 가장 짧은 동안으로 마감하였다. 그가 유난스럽기까지 하도록 관음의 화신으로 여긴 우녀와 그 우녀를 다시 관음으로 투영시키는 일이 끝나는 그의 먼 바다에 떠있는 섬을 남게까지 된 것이다.

파도는 점점 사나워졌다.

진작 갈매기 따위는 자취가 없었다. 바다 위에서의 저녁무렵은 길다. 그 긴 낙조조차도 그 끄트머리는 여지없이 커다랗게 져무는 시간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대해들이 어렵사리 무육도 선착장에 닿은 것은 밤중이었다.

그동안 그곳에서는 몇사람이 무척이나 걱정을 하였다. 인담과 우녀 그리고 소년행자 이외의 사람들은 저녁의 빈 속 그대로의 몸에 걱정을 가득히 채워 세사람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녀는 "좋은 말 하나는 돌아오지 않아도 좋은 말 셋은 꼭 돌아온답니다. 근심꺼리는 다른데 있어야지요" 하고 그들을 넌짓이 권잔하고 그의 처소로 들어갔다.

좋은 말이라면 〈잡아함경〉의 어딘가에 나오는 수행자에 대한 비유 아니던가.

제1의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마부의 뜻을 따라 빠르고 느림을 스스로 조절한다.

제2의 좋은 말은 채찍으로 그 갈기나 꼬리를 살짝 건드리면 마부의 뜻을 헤아려 따른다. 제3의 좋은 말이란 채찍이 몸뚱이에 닿으면 마부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제4의 좋은 말이란 최사슬의 채찍으로 몸을 치고 뼈가 상한 때에야 놀라 마부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도 이런 제4의 말도 좋은 말에 속하는 것이 너그럽다.

그것도 안되는 불량(不良)한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런 데다가 돌아오는 세사람을 견주는 우녀는 여자로서나 무육도의 한 지도자로서나 얼마쯤은 거칠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제1의 좋은 말을 저 세상으로 보낸 그녀로서는 며칠동안의 마음을 그렇게 단호한 말로 보여주고 대중 가운데서 물러난 것인지 모른다.

대해들이 돌아 온 것을 인담이 크게 위로하였다.

"고생이었네. 도반(道伴) 한 분의 영가를 마음에 지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어서들… 죽 쉬시게… 내일 아침 해가 퍼오르는 일도 잊고 푹 쉬시게…."

돌아온 사람들은 우선 몸을 데워 몸을 씻었고 바닷물에 적셔진 옷가지들을 바꿔 입었다.

그동안 상수가 누워있던 간병실을 비롯해서 이랫채 위채 별채의 요사(寮舍)들은 아주 깨끗이 쓸고 닦고 한 뒤였다. 한 사람이 죽어 나갔으므로 남은 사람들마저 새로운 삶을 위한 청장(淸淨)이 갖추어져야 하였다.

그러니까 상수를 잃은 누이 상음조차도 먼 바다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던 것을 우녀가 그만두게 해서 상수가 눈을 감았던 간병실을 청소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수행자에게는 슬픔이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인가. 슬픔 따위를 이겨내는 것은 방바닥과 벽과 문짝 따위를 몇번이고 쓸고 닦는 그런 실질 모르는 일이기 때문인가.

이렇게 되자 인담을 비롯해서 박월 길성 순풍이도 도량 간판을 쓸고 닦고 하면서 바다로 간 동료의 시신 따위를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내버려야 하였다.

그런 뒤 깨끗한 마당이나 공터 구석구석까지 물을 뿌렸다.

> 물 뿌리노니 동쪽의 도량 깨끗하여라
> 물 뿌리노니 남쪽 도량 깨끗하여라
> 물 뿌리노니 서쪽 도량 깨끗하여라
> 물 뿌리노니 북당 도량 깨끗하고 평안하여라

이렇듯이 사방의 도량을 찬탄함은 그 가운데 머무를 불보살과 여러 천신 그리고 수행하는 자신들의 혈연과 법연까지를 아울러 찬탄함이 된다. 본디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 동쪽은 어버이,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 북쪽은 친척과 여러 멀고 가까운 일가붙이, 아래쪽은 노비, 위쪽은 바라문이나 사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서남북의 도량을 청소한 다음의 찬탄은 이런 옛 인도의 예배풍습과도 닿아 있다.

그렇게하여 그들이 사는 도량이 청정해야 그 터전 하나 없는 도량에 불보살과 법과 법의 회상(會上)뿐 아니라 우주의 여러 정신까지 모여들어 온세상을 향한 자비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었다.

더우기 상수와 같은 가장 정신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난 뒤라면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도량으로 거듭나야 하였다.

> "슬픔이 독사보다 더 무서우니
> 도량안팎을 쓸고 닦자
> 도량이 청정해야 자비의 힘을…"

굳이 이런 잠깨 이후의 일이겠는가. 그들은 이 무육도를 아침저녁으로 쓸고 씻고 닦아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지경이었다.

실로 청정도량이었다. 그런 도량에 짓들인 밤은 이슥할수록 향기로왔고 천년의 파도소리도 방금 들리는 새로운 소리였다.

그래서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날밤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밖에서 들리는 파도소리가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아주 크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생전 상수의 조용한 말소리가 새로 확대됨으로써 그 커진 파도소리로 된 것인지 모른다.

대해가 먼 바다에 다녀온 몸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파도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므로 차라리 깨어있자는 심사로 문을 탁 쳐 열었다. 파도소리가 와락 몰려 왔다.

공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수미산이라 대답한다네

또다시,

공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놈아 저기 저 수미산더러 물어보아라
대답은 커녕
와르르 무너져
네 놈을 파묻어버릴 터이니

이런 소리가 우녀의 입에서 나왔고 상을의 귀가 듣고 있었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무육도는 다시 큰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 떼어난 정신의 상수가 없어진 것도 늙은 사람의 이빨 하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자연스러웠던가.

인담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곳 도량에서는 일체 망축(亡祝)이 없다. 생축(生祝)이 없는데 망축이란 배꼽에 뿔이 난 격이겠지… 앞으로 사십구재 같은 것도 없다."

광소의 그답지 않게 노여움을 띤 반말이었다. 아무도 이 말에 이의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평상의 나날로 돌아갔다. 생식도 그대로였고 오후의 작업도 그대로였다.

아침의 정진과 밤의 치열한 정진도 누구와의 경쟁처럼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상수가 세상 떠난 뒤 첫 7일이 되었다. 그때 예성강의 사공 세사람이 섬의 숲속에 들어가 서로 뱃속에 담겨진 말을 꺼냈다. 두꺼비 눈을 가진 박월이 먼저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섬은 애시당초 인정머리가 없는 곳이야… 세상에… 상수선비가 죽었는데도 그의 명복을 빌기는 커녕 49재도 지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 섬에는 아예 아미타불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는 뜻이야."

길성이 말을 받았다. 미리 짠 것처럼 철썩 아귀가 들어맞았다.

"우리 두 보살에게 가서 따질까?"

"보살은 무슨 보살인가… 그저 이 섬의 귀신들이지… 암캣 수캣 귀신이야."

"어떨텐가? 그들을 내쫓아버릴까?"

박월이 입을 다물었다.

숲속에서 숲 위쪽을 훑어가는 바람소리가 그들을 긴장시켰다.

"아니라네… 우리가 떠나세… 예성강이 우리 도량이 아닌가."

"그러자구."

하지만 순풍이는 그들과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순풍이 자네는 어떨텐가?"

"글쎄… 예성강 나루터로 가면 나는 그놈의 지난 날 선장들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송선장, 진선장 말인가. 그것들이야 이제 늙어버렸지 않는가."

"그 선장의 아들이 있지 않는가?"

길성이 순풍이한테 대들었다.

"그렇다면 너는 여기 남아있겠다 그말이냐?"

"생각해볼 일이다 그 말이지."

그때 박월이 그들을 말렸다.

"며칠을 더 두고 생각해보게. 순풍이."

그들은 이런 얘기를 주고 받은 것만은 아무에게도 흘리지 않기로 약조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다. 소년행자 우식이었던 것이다.

그림 · 조향숙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입시지옥에서 해방이다. 이젠 맘껏 즐기자' 13일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사회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절제되고 금욕시돼 왔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이때 자칫하면 방황과 무절제된 생활이 이어져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탈선의 길로 접어들기 십상이다. 매년 수능이후 고3생들의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면서 각급 학교와 학부모들은 또 한번의 시련을 겪는다. 바로 이때가 청소년들에게는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표에 근접한 학생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등 현재 어떠한 입장이든 건강한 인격체로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종립학교 등 예비졸업생 교양교육 프로 마련

"수능이후 청소년 탈선을 막자"

문화재 탐방·취업지도·영화감상·성교육등 다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누장 선일스님)가 지난해 조사한 청소년유해환경 결과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대부분 수능이후부터 유흥업소에 출입 및 술, 담배 등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일부 청소년들은 마약까지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 및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 교법사들의 주장이다.

종립학교의 경우 특별면학프로그램을 편성, 졸업할때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 결과 학생들의 비행과 탈선율이 감소됐을 뿐 아니라 졸업후 사회적 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에 더한 예비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과는 대조적인 결론이다.

종립학교들은 고찰 및 문화재 탐방 등 현장실습위주의 교육, 비진학학생들을 위한 취업지도교육, 성교육 이·미용강좌, 공연 및 명화감상 등의 교양교육 등 그동안 모든 생활환경이 대학입시 준비에 집중돼 쌓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광동여자고등학교(교장 김양수)의 경우 고3 생들을 위한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놀라운 교육성과를 올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광동여고는 지난해 지역내 유명 사찰순례, 불교문화재탐방, 한문교육, 명화감상 등을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불교특강, 법원재판견학, 비진학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도는 물론 취미 및 봉사활동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지난달 25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지도체제 정비, 학생진로지도 철저 등을 골자로하는 '9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입선발고사 이후 학생지도 대책수립운영'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청소년지도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각 종립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면학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비행 및 탈선예방지도를 위한 대책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물론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생들 전체가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첫발을 내 딛는 청소년들 대부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심리적 충동 때문에 유해환경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교련 인천지부는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을 위해 수련대회및 건전노래방을 실시하고 한국인 생활교육연구소는 오는 26일부터 6일간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서울시내 고교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학송법사(광동여고)는 "그나마 올해는 '김교각전'과 같은 문화행사가 있어 다행이지만 사찰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및 교양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청소년 게시판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증실스님)는 지난 10일 한국자유총연맹 대강당에서 '96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한다'라는 취지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이론과 실제(김영준 대전광역시 교육청 중등장학사), 청소년자원봉사의 활성화방안(전채근 자원봉사센터 교육개발부장)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대불청 남도 성지순례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는 오는 23~24일까지 성지순례 및 남도기행을 실시한다. '풍경소리 깊은 새벽산사'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순례코스는 전주 송광사, 여수 향일암, 흥국사 등이다. (02)3458-0177

윤리회복 실천대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고봉식)는 오는 16일 남녕고등학교에서 96윤리회복실천 청소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의 윤리회복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대회는 강연, 사물놀이 및 사자탈춤을 비롯 약물남용예방 가두캠페인이 진행될 계획이다.

군법당 은행나무심기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오는 24일 군법당 은행나무심기 행사를 마련한다.

경기도 파주 1군단 일승사 군법당을 비롯 민통선내 구암공원에서 펼쳐질 이번 은행나무심기 행사는 '국토를 푸르게 가꾸는 운동'의 일환으로 연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출발은 24일 오전 9시 조계사 앞. (02)723-6258

"불교학생회 활동 1년미만" 59%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1312명 설문조사

중·고학생회 연계절실

"가입동기 친구권유" 30%

현재 불교학생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불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미만의 신행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지난달 8일 불교청소년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8월 덕유산 야영장에서 펼쳐진 파라미타 연합캠프에 참가한 중·고교생불자 청소년 1천3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교활동 경력을 묻는 질문에 58.7%가 12개월 미만, 13~24개월 이하가 13.6%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와의 연계 신행활동과 신입회원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위해서는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불교학생회 가입동기에 대해 전체의 응답자중 친구의 권유로(30.1%), 부모의 권유로(19.2%), 선생님의 권유로(7.1%), 설법을 듣고(3.7%), 친척의 권유로(3.6%), 기타(3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권유가 고등학생(14.2%)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권유가 중학생(20%)보다 15%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는 청소년들의 종교생활에는 친구와 가족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 문화시설부족(24.6%), 가정문제(20.7%) 나쁜 친구의 영향(20.6%), 대중매체 영향(10.2%), 학교교육문제(9.4%), 본인의 잘못(9.1%)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나쁜 친구의 영향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화시설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부처의 장 *
부처의 승리는
깨뜨려질 수 없고
아무도 그의 승리에
미칠 수 없다



이 향 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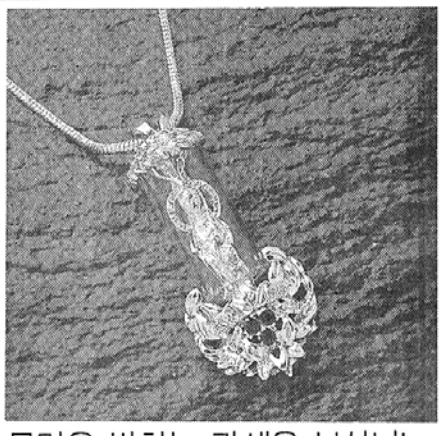
▲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 운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 부자가 되는 비결부
▲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 삼재소멸 비결부
▲ 팔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꿈해몽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살아있는 인도의 영혼을 찾아서 박지명 지음 값 8 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명스님 지음 값 7 000원

개점의 소리 신사: (02)444-3575,3310 종로서적 신사: (02)732-5381 종로: (02)3436-1064 종로: (02)732-6202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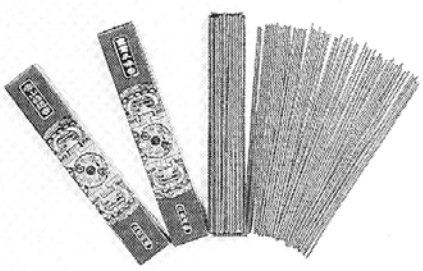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14k 0.5MC 특수도금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二軾佛教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눈이 따갑거나 목이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향기는 깊고 고상합니다.
24가지 천연약재와 귀한 백단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산수도향(雪山修道香)과 영취삼매향(靈鷲三昧香)은 불자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합니다.
가까운 불교용품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얼떨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軾實業 佛教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조계종 역경위 '불학총서' 3권 첫선

승가대 교재 보급…한문교육 풍토개선 '일조'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회(위원장 법성)의 첫 성과물인 '불학총서' 3권이 발간됐다. 역경위원회는 동국역경원등 한국불교 역경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승가교육 및 불교신행의 사상적 중심을 정립키 위해 승가교육교재를 우리말로 번역, 지방승가대학 학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하고 그 1차 사업으로 〈아함경〉〈팔천송반야경〉〈쇠가여래행적송〉(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했다.



◇법성스님

이번 '불학총서' 3권의 발간은 기존 역경사업의 계승 발전은 물론 지방승가대학의 한문 훈고학적 교육방법론, 참선·바라밀행과 유리된 사변적 교학연구의 풍토를 개선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시리즈가 전문인력 부족과 재정적·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초벌번역작업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 차원 높은 2차번역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서 제1권 〈아함경〉은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처님과 그의 가장 원초적 교설을 불교의 중심지표로 설정해 내기 위해 가장 먼저 번역됐다. 경전과 종파마다 각기 달라진 언어의 갈래와 한 종교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섞일 수 없게 된 신행과 의례의 차이점에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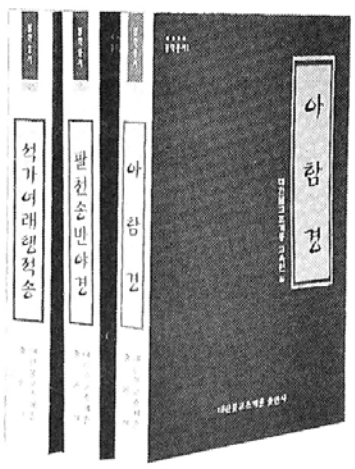
제2권 〈팔천송반야경〉은 〈반야경〉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간직한 경이다. 먼저 〈팔천송반야경〉이 처음 성립된 뒤 〈반야경〉이 이만오천송반야, 십만송반야로 넓혀지고 깊어졌다는 것. 〈팔천송반야경〉은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제시하며, 바라밀의 실천은 끝내 일체지에 회향되고 중도실상에 귀착됨을 보여준다.

제3권 〈석가여래행적송〉은 고려 충숙왕때 부암무기(浮庵無寄)선사의 저술. 석가모니불의 행적과 교설의 기본내용, 중국으로 법이 전승되어가는 과정과 정치세력에 의해 진행된 법난 등을 쓰고 있다. 부암무기선사는 이 책에서 중생과 시주에 은혜 갚는 바라밀행과 전법행의 대결단을 하지 않는 한 불교교단의 새로운 변혁도 불법의 올바른 전승도 있을 수 없음을 설하고 있어 오늘날 승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팔천송반야경〉과 〈석가여래행적송〉은 특히 최초의 완역본이란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 또 각권마다 30~40쪽 분량의 충분한 해제

아 함 경 교리해석의 기준 초기경전 전집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의 원형·바라밀실천 제시
석가여래행적송 고려 부암무기선사 저술 첫 국역

화엄·천태·선학 관련서등 계속 출간될 듯



를 달아 사상적인 의의를 밝히고 번역문과 함께 원문을 실었으며 자세한 주(注)와 색인을 단 것도 경전 번역서의 모범이 될 만하다.

역경위원회는 앞으로도 〈화엄종학〉〈화엄현담〉 등 화엄학관련서 3권, 〈마하지관〉 등 천태학관련서 4권, 〈전등록〉 등 선학관련서 4권도 2년내로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법성스님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97년도 예산 1천7백만원은 화엄학림의 〈화엄경현담〉 번역비로 충당하고, 그 밖의 번역 및 제작비는 기존 발간 서적의 판매를 통해 충당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가지



조 유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오늘날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종교관계 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나 자신도 한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틈을 내어 독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속에서 내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용산스님의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고려원 刊)라는 책이었다. 책 제목이 신선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평범한 생각에 주저없이 펼쳐보게 되었다.

그런데 한장 한장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공감이 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건만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한 채 마치 저승갈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만 같이 욕심만으로 달린다.

내 자신은 고고학이란 학문의 이름을 빌어 수많은 옛 무덤을 발굴조사해 왔다. 그러다 보니 죽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한 평의 땅도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이 사람이 죽으면 고작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탐욕의 늪을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생각케 해준다.

3대 과부집의 장손으로 신학대학을 지원하려 했던 이 책의 저자는 〈반야심경〉을 통해 불교와 첫 인연을 맺게 된다. 그리고 그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에 감명을 받고 불교로 개종할 것을 결심하여 마침내 〈육조단경〉과 〈보조어록〉을 읽고서 집안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산한다. 그는 고통받는 지옥중생과 육도의 모든 중생이 단 한명이라도 성불하지 못하는 한 자신도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력에 감동하여, 참선의 수양보다는 〈지장경〉을 통해 중생을 구도하고자 하는 포교승으로 활동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큰 절의 스님이기 보다는 저자거리를 떠돌며 이웃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인간의 참된 성숙과 사랑, 그리고 화합을 기원하는 스님이 되어 신라시대의 원효와 같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구도자이길 원한다.

이 책은 속세로부터 불가에서의 이력을 전제로 한

탐욕의 늪 벗어나는 지혜 담겨

읽는사람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

설교집 이전에 누구나가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상집이다. 여기에서의 소재가 저자의 체험은 물론 신문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사건과 역사적 일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3대 과부집의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입산하게 된 회상의 노래와 3대 과부들(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인간적인 참회, 그리고 불교에 입산한 이후의 불법수양과 종교생활에 도움을 준 경찰과 신부, 그리고 책과의 인연 등등 불교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참된 불교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그의 체험과 불교의 윤회사상을 중심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진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게 한다.

연관스님 '금강경 간정기' 번역 출간

직·의역 적절…금강경 해설 새지평 열어





◇연관스님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방대한 분량의 무게있는 경전 번역서가 나왔다. 연관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이 번역한 〈금강경간정기(金剛經刊定記)〉(선우도량 刊)가 그것이다.

〈금강경간정기〉는 당나라 규봉종밀 스님의 〈금강경찬요〉에 대한 주석서로 송나라 장수자선(長水子璿; 965~1038) 스님이 지은 책. 수백종에 달하는 〈금강경〉 주석서 가운데 중도(中道)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려뽑고 잘못된 부분을 추려낸 〈금강경찬요〉에 다시 자선스님이 어지러운 부분을 잘라내고 체계를 지워 펴낸 주해서다. 역자인 연관스님은 여기에 덧붙여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9) 스님의 〈금강경오가해 사기(私記)〉중 '찬요'에 관한 것만을 뽑아 번역, 주(注)를 붙였다.

〈금강경간정기〉에서 연관스님은 경문(經文)과 소문(疏文)은 번역문에 원문을 붙였고 기문(記文)은 번역만 하였다.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고루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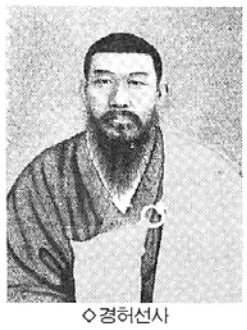
선우도량 출판부, 4·6배판 524쪽, 2만5천원.

"경허선사 일대기 소설로 본다"

윤청광씨 '착한일 많이 하게…' 펴내

근세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경허선사(1849~1912)의 일대기를 다룬 구도소설 〈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세〉(언어문화사 刊)가 나왔다. 작가 윤청광씨(방송위원회 심의위원)가 불교방송의 간판프로인 '고승열전 시리즈'를 소설화한 14번째 책.

〈착한 일…〉은 정치·사회적 격변이 심했던 근대사를 산 경허선사의 걸림없는 대자유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 불자들의 발심(發心)을 일으키게 하는 전기소설이기도 하다. 또한 재미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해 일반인들도 경허라는 한 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사상을 접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경허선사

한국 현대불교의 선지식인 만공 한암 혜월스님을 키워 낸 경허스님은 중국의 조주·임제, 신라의 원효, 대안스님에 비견되는 대선사로서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과 불교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8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9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	우 학	좋은인연
10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구입문의:(02)737-0695

법화사상 차차석 옮김

화제의 책



히라가와 아키라 동경대 명예교수 등 〈법화경〉을 연구하는 아홉명의 학자들이 분야를 나눠 세밀하게 연구분석한 법화사상서. 법화사상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되 일반인들에게 법화사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려주는 개설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역자는 차차석씨(동국대 강사).

현대적 연구방법인 문헌사학에 입각, 〈법화경〉의 성립 내지 배경을 조망하면서 종교적 실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법화경〉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또 〈법화경〉의 불타관, 핵심사상인 일승과 삼승 등을 비롯한 인도·중국의 〈법화경〉 주석가들의 사상적 특징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법화사상의 합리적인 이해와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여래 8천원.〉

일본학자 9명 법화사상 심층분석

가장 받아보고 싶은 사보— '해인'
인상깊은 사보— '불일회보' '관음'
재미있는 사보— '자비동산' '청암'

책방 여시아문, '사보전시회' 불자추천 집계

불자들이 가장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보(寺報)는 해인사의 〈해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인상깊은 사보는 송광사 사보인 〈불일회보〉와 광주 관음사의 〈관음〉, 가장 재미있는 사보는 강릉 자비원의 〈자비동산〉, 김천 청암사의 〈청암〉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본사 부설 책방 여시아문이 개업 2주년 기념으로 지난 10월23일~11월3일까지 국내 최초로 연 '사보 전시회'에 참여한 불자들의 추천을 받아 집계한 것.

지난 82년 창간돼 통권 176호를 내고 있는 〈해인〉은 산뜻한 편집과 진솔하면서도 수준높은 기사가 불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불일회보〉는 1면의 선화(禪畵)와 시원한 편집이, 〈관음〉은 표지디자인이 인상깊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 〈자비동산〉은 어린이잡지처럼 다양한 내용이, 〈청암〉은 비구니 사찰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눈길을 끈 것으로 평가됐다. 〈재〉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혀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故 명원 김미희보살의 차문화보급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명원문화재단이 발족됐다. 사진은 차문화교육의 산실이 될 명원문화재단의 650여평 정원. 2동의 건물이 수련원으로 사용된다.



◇명원문화재단 개원 및 한국차생활문화원 이전 현판식법회에서 다성(茶聖) 초의스님과 김성곤·김미희부부 영정에 헌다(獻茶)를 하고 있는 김의정이사장(왼쪽)과 감승희원장. 茶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성북동에 茶도량 생겼다

명원문화재단·차생활문화원 "차문화보급은 정신운동"

내년 초파일 40여평 '茶亭' 개원
"차향 퍼지는 사회 건강해져요"

서울에서 절이 가장 많다는 부처님 동네 성북구. 성북구 성북2동 330-508번지에 차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창의적 생활문화와 균형있는 발전과 사회윤리도덕의 고양을 모색하기 위한 차문화도량(茶文化道場)이 생겼다. 〈본지 101호 4면 참조〉

"나라가 잘되려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래의 어머니가 될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비롯 젊은이들에게 차정신을 비롯 전통문화를 교육시켜 건전한 정신을 선양시키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손을잡은 '명원(茗園)문화재단'의 김의정이사장과 사단법인 한국차생활문화원 감승희 원장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故 김미희보살과 성곡 김성곤회장의 6남매중 둘째딸인 김의정이사장은 어머니 김보살의 차문화보급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어머니의 호를 딴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을 창립했다. 성북동에 위치한 650여평을 선뜻 기증하고 이천에 있는 수만평 농원도 재단을 위해 쓰기로 했다.

명원 김미희보살은 70년대 초반 일본 방문중 "한국에서도 차를 마십니까?"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고 우리 고유문화인 차에 대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며 차문화보급에 적극 나선 선각자적인 인물. 차의 성지 일지암복원에 앞장섰으며 차인협회를 결성하고 전통다례연구발표회도 수차례 가졌다. 지난 1977년 신수대장경 100질을 출간했으며 조계사 신도회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불교계 일에 많이 동참했다.

명원문화재단은 내년 초파일을 기해 40여평되는 다정(茶亭)을 개원한다. 순한식 토담집으로 지어질 다정은 차보급을 위한 일체가 갖춰진 전문 차문화센터가 될 전망이다. 다기 전시, 각 다례와 차관련 토론회, 이벤트행사 등이 개최되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린 장소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차의 확산을 위해 차를 마시는 기구인 도자기의 저렴한 보급과, 허브차 당귀차 등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통차의 보급, 차에 관한 쉬운 책자발간, 차요리개발, 우리 콩으로 장담그기 운동 등 다양한 전통문화사업도 펼친다.

감승희원장은 70년대 우리나라에 차가 겨우 움트고 있을때 인사동에 다구상설전시장을 만들고 차무료강좌를 열어 차보급에 나섰던 명원선생의 애(愛)제자. "3년 가까운 무료 차강좌에서 천여명이 넘게 수강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차행사에도 참여하게 됐고 차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양성도 시작되었지요."

명원재단과 차문화원은 공동으로 내년 5월, 문화인물로 초의선사가 선정된 것과 제17회 차의 날 기념행사로 '고려연등의례'를 재현할 예정이다. 고려때 국가의식이었던 상원연등회의식을 덕수궁에서 그대로 재현시킨다는 것. 또한 오는 26일부터 6일간 고교졸업반 학생들을 위해 차교육 등 교양강좌, 노래와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는 길라잡이 시간도 제공하여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을 선도할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어머니가 선각자의 자리에 나서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삶의 근간인 농촌에서부터 차 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김의정이사장과 감승희원장은 차를 즐겨 마시는 풍조가 확산되면 차향만큼이나 향기롭고 윤리 도덕이 살아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숙 기자

"'불밭에 피는 꽃'이란 탐욕과 번뇌로 불타는 중생들의 삶 속에서 한줄기 연꽃처럼 피어나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상징합니다. 내용과 곡이 아름답고 절절해 연습하는 도중 단원들과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국악공연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고 연습에도 보통 심혈을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가 무대에서 잘 발휘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오는 19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을 연주하는 4백여 합창단의 지휘자 정옥녀씨(청룡사 마하합창단 지휘자). 정씨는 특히 이번 무대가 청룡사 마하합창단 창단 20주년을 결산 기념하는 무대라 유난히 감회가 깊다고 토로한다.



인터뷰

19일 국악교성곡 '불밭에…' 지휘 정옥녀씨

"지장보살님의 서원 선율에 담아 대중공양해요"

청룡사 마하합창단 20년 결산·천일지장기도 회향

"마하합창단이 창단된 1976년 경만 해도 교계에는 사찰 합창단이 다섯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습니다. 찬불가의 개념도 희박했고 찬불가도 얼마 없던 시절이라 몹시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온 것은 오로지 신심 하나로 매달린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찰마다 합창단의 중요성을 알고 사찰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쁘기 그지 없지요."

훤출한 키와 당당한 모습으로 까만 연미복이 무척 어울리는 정옥녀씨가 무대에 오르면 그 정열적인 지휘모습으로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씨는 삼보법회 대학생 합창단 인연으로 시작하여 15년전 고 김용호씨에게 지휘공부를 하며 본격적으로 합창단 지휘에 뛰어들었다. 청룡사는 주지 법운스님이 음악을 사랑하고 관심이 지대해 20년을 이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지스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특히 법운스님은 3년전에 시작한 천일지장기도를 이번 공연과 더불어 회향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다.

마하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외에 크고 작은 불교음악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 초청공연도 가지며 한국의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청룡사 마하합창단외에 대한불교합창단 묘각사 한미사 흥륜사 등의 합창단 지휘를 맡고있는 정옥녀씨. 현재 김규환씨에게 작곡을 배우고 있다. 또 중앙대 음대 대학원서 수업중이다. 직접 작곡한 곡으로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리는 것이 꿈이다. 〈숙〉



◇신상철씨 ◇이필이씨 ◇배복도씨 ◇정일스님

마산창원불교연합회 6회 시민불교문화상

문학상—신상철씨
예술상—이필이씨
언론상—배복도씨
봉사상—정일스님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는 향토문화와 언론창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제6회 시민불교문화상을 확정 지난 3일 마산 사보이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시민불교문화상 문학상에는 신상철(경남대교수) 예술상에 이필이(무용가) 언론상에 배복도(전 경남매일수석논설위원) 봉사상에 정일스님(감로심장회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찰흙으로 탑빚기 재미있어요"

화순 운주문화대축제 현장



◇선조의 솜씨를 이은듯 춘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능숙하게 천불천탑을 만들며 기뻐하고 있다.

레이저 와불세우기·별자리탐사등 '눈길'
화순 민·군 화합 "지역문화 활성 계기로"

"부처님을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고 자랑스러워요."

"찰흙으로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돌로 잘 만들었을까요."

"우리 고장에 있는 운주사에서 이러한 행사가 열리고 직접 탑도 만들어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지난 2일 열린 '96 화순운주문화대축제의 천불천탑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화순군 춘양면 춘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감이다. 천년여전 천불천탑을 만든 선조들의 솜씨가 그대로 이어진듯 어린이들은 능숙하게 찰흙을 주물러 와불 등 부처님과 탑을 만들어 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식과 수법의 석탑 18기와 석불 1백여구가 산재해 있는 운주사는 그 특이한 탑과 불상과 거기에 스며있는 전설로 인해 문학 미술 사진 등 예술인들이 창작의 중요 소재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천불천탑의 신비를 안고 있는 운주사를 주제로 화순군(군수 임흥락)이 주최가 되어 '화순운주문화축제'를 10월 31~11월 3일까지 4일동안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화순군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성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함양과 나아가 국제적인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전야제격인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작으로 '민속공연 한마당' '학술심포지엄' '천불천탑만들기' '와불세우기' '궁도대회' '별자리탐사' '호박요리경연' 등 재미있으면서도 이색적인 행사가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천불천탑만들기는 어린이를 비롯 중고생 대학생, 온가족, 단체로 온 신도들, 외국관광객 등 누구에게나 점토를 제공, 마음껏 불상과 탑을 조성케 해 가장 인기있는 코너였다. 주최측은 축제기간동안 조성된 천불천탑을 모아 천여년전 천불천탑을 만들때의 염원을 담아 전시했다.

2일밤에는 누워있는 와불이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졌다. 넓은 잔디밭에는 스크린이 설치돼 레이저 광선으로 와불이 일어섬과 동시에 한옆에서는 5m×5m의 흰 천에 김복환 박수만씨가 그린 대형 걸개그림 와불이 같이 일어선 것이다. 와불이 일어서는 날 나라가 통일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운주사전설이 첨단기법인 레이저로 현시화된 것. 사람들의 가슴에는 환희심이 넘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일었고 경내를 밝힌 연등이 걸려있는 탑주위를 자연스럽게 돌며 민족통일을 간절히 기원했다.

화순=이경숙 기자

화제의 전시회

현찬스님 판화서각전
안산 올림픽기념관

현찬스님의 판화서각전시회가 오는 18일~26일 안산시 올림픽기념전시관 3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다보사불사기금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안산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한다.

유영교씨 조각개인전

인간의 삶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유영교씨의 조각 개인전이 오는 14일까지 중구 다동 동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불교 기독교 도교 등 종교적 상징물을 모티브로 표현한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국보 반가사유상과 형태가 같은 '사유'〈사진〉가 눈길을 끈다. 유영교씨는 홍익대 조소과를 나와 이탈리아 국립 로마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행자 스님을 모십니다

부처님전에 출가할 20대 여성 (고등학교~대학 졸업 환영) 행자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0463-32-2805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황,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디스크·관절염·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절·척추·골반·교정법
◆ 음양오행·기공 지압법
◆ 목·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비만·중풍예방 시술·지도
전화 : 543-7306·711-4370
長三洙 척추교정·지압원

小白山 령통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및 휴양하실 몇분을 모십니다.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숙식 제공 및 1인1실·기름보일러
연락처 : (0444)22-1094 22-0347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법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응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당 안내
●위 치 : 신림 7동 ●평 수 : 100평
●법 당 : 10평 ●요사처 : 12평
●금 액 : 1억7천만원(가격조정가)
연락처 : 856-9798 792-4075

포교당 안내
●위 치 : 망우 사거리 ●평수 : 30평
●보증금 : 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천만원
●연락처 : 02)494-3929 05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늙지않는 피부관리 남·여
기미 여드름 검버섯 늘어진 얼굴
완전회복
◉ 불로향 요법 효능
얼굴에 불로향 원료를 바르면 코를 통해 흡입되어진 불로향 성분이 신경계를 통해 뇌에 전달되어 뇌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방지, 피부세포 재생효과 피부의 살균과 청정 향기 미인을 만든다. 미남을 만든다.
불로는 늙지 않는다는 뜻을 갖는데서 붙여진 명칭, 불로향 독특한 피부미용법
100% 고객만족과 미인 미남을 약속할 수 있는 불로향
불로향피부관리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현대고교 건너편
☞강남전철역점 ☎563-5791 뉴욕제과 건너편 다이하드골목코너 불로향 피부관리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찰 안내
▶위 치 : 충북 ▶요사채 : 20평
▶법 당 : 10평 ▶대 지 : 94평
▶가 격 : 7천5백만원
전화 : 0373)374-4459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월세 48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기도·수양 하실분
◆ 1인1실·욕실완비
◆ 비용 : 월30만원·숙식제공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반석1리 불광산 정토원
전화 : 0338)71-8209·8210

동불·탱화 순금불사·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광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仁 합장

'참사람 결사' 특별법회 연다

백양사 고불총림 주최… 14~16일 BBS 대법당서

서옹스님 "인간성 회복·생명자각" 강조

정신타락·환경파괴 극복 대안 제시

21세기 현대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성 상실과 자연환경 파괴의 위기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의 '참사람결사' 특별법회가 봉행된다.

백양사 고불총림(방장 서옹)은 최근 참사람결사 법회위원회(위원장 지선)에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증명으로, 고문에는 석주 관응 월산 수산 비룡 천운스님과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매일 오후3시) 서울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참사람 특별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참사람'은 서옹스님이 "과학문명이 붕괴에 직면하고,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현대를 참사람원리로써 극복하여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자"고 주창해온 사상운동이다. 서옹스님은 '참사람'을 "유물(唯物)에도 유심(唯心)에도 무의식에도 하느님(God)에도 불조(佛祖)에도 구속받지 않는 공간적으로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형성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무한한 역사를 창조하는 절대주체의 자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서옹스님의 〈임제록〉을 주제로 한 법어가 3일 동안 설해지며, 매일 특별강연회도 개최된다. 서옹스님은 법어에서 현대문명의 바탕인 서구문화는 목적론적 기계론적 사고로 세계를 설명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참사람운동을 통해 인간정신의 타락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회와 함께 열리는 특별강연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현대인의 보살도'(14일, 정병조 동국대교수) '선과 참사람'(15일, 종성스님·임제선원장)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16일, 건기종·동국대교수).

법회위원장 지선스님은 "침체된 불교에 생명을 불어넣고 황폐화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오래전부터 서옹스님께서 '참사람결사'를 주창해오셨다"며 특별법회에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된 석굴암(국보 제 24호)이 불교TV와 KBS에 의해 각각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문화유산의 해'인 내년초 안방에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화제의 두편의 다큐멘터리 중 한편은 불교TV가 제작하는 '석굴암(가제, PD 최세영)'. 다큐멘터리 '석굴암'은 신앙의 바탕위에서 건립된 석굴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올해 초 다큐멘터리 고려대장경으로 한국유선방송협회 우수작에 선정되기도 했던 최세영PD는 "석굴암의 역사성이나 예술성, 과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총괄하는 석굴암의 신비를 이끌어낸 심오한 신앙의 힘을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줄 생각이다"면서 "불교TV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TV의 '석굴암'은 내년 초파일 쯤에 방영될 예정이다.

오는 1월 1일 새해 첫날에 선보일 예정으로 현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BS의 '원형탐구 석굴암(가제, PD 김형일)'.

김형일PD는 "석굴암을 우리나라 국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다루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천년전의 그 시대에 석굴암을 만들어냈던 신라인들의 지혜와 건축기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요 골격"이라고 말했다.

'원형탐구 석굴암'은 제목이 암시하듯 1천년전 원형그대로의 석굴암의 모습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재현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작팀은 지난 6일 본격적인 석굴암촬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래픽 작업에 착수해 지난봄 다큐멘터리 '황룡사' 때와 마찬가지의 컴퓨터 그래픽기법을 선보이게 된다.

다큐멘터리 '원형탐구 석굴암'은 그래픽과 실사가 합성된 가상현실 공간에서 38구의 불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최근들어 잘못된 보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새롭게 재조명 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btn 석굴암 다큐제작 KBS

신라인 불심·건축기술등 과학적 조명



◇대행스님이 한마음선원 8번째 해외지원으로 개원한 독일지원 개원법회에서 법문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개원

해외 8번째…10만 독일불자 귀의처로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카스트시에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스님)이 마침내 개원됐다. 이르써 현재 독일 전역의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독일인 불자들의 귀의처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개월여 준비끝에 지난 10월6일 개원법회를 가진 독일지원은 해외에서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트루만 토론토에 이어 8번째로 설립된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을 비롯 홍순영 주독일대사 카스트시 시장 등 한국 독일 인사 2백여명이 자리해 성황을 이루었다.

대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마음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참된 생명의 실상이나 혼탁한 세속생활에서 잃어버린 본디 마음"이라고 밝히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수양을 통해 도달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 개원한 독일지원은 4백여평 대지에 2백평 규모의 단층건물이다. 한편 법당 내부에는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설비 시설을 갖춰 한인 신도는 물론 독일인 신도도 법회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지원은 매일 오전 11시 사시예불을 올리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정기법회를 연다. 특히 법회는 30분 참선, 대행스님 비디오 법문,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 02131-969551〉

加 토론토지원 중창이전

캐나다 한마음선원 토론토지원(지원장 청각스님) 중창이전 불사 회향 및 봉불점안 법회가 10월 27일 토론토 온타리올 현지에서 1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토론토지원은 금년 초 이전불사에 착수, 옛 한인회관 자리에 새로 도량을 마련하고 이번에 봉불회향식을 가졌다.

〈전화 416-750-7943〉

방송가 소식

대구BBS 11일 개국 한루 21시간 방송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방송지표로 불교대구방송(지사장 법타스님)이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지난 11일 개국했다.

불교대구방송은 주파수 94.5Mhz 호출부호 HLDI, 출력 3Kw로 대구경북 일대를 가청권으로 하루 21시간(5:45~01:55) 정규방송시간을 보도, 포교, 음악, 오락 등의 균형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역청취자들의 정서를 담아낼 계획이다.

개국일인 지난 11일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를 연결하는 4원 생방송과 '불교대구방송이 나아갈 길' '우리는 불자' '영남성산 팔공산' 등 특집프로그램으로 불교대구방송의 개국을 알렸다.

불교대구방송은 12일부터 정규방송에 돌입, 뉴스를 비롯 백팔가요, 고승열전, 등 중앙국프로그램과 대구경북 지역의 아침을 여는 '불국토의 아침', 종합음악프로그램 '내마음의 노래',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솔바람 풍경소리' 등 로칼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선옥교수 '선무지도'

KBS 2TV '아침을…' 서



정신과 육체를 함께 훈련시키고 건강한 삶의 활력을 찾게하는 '선무'가 관심을 모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오전 6시 10분) KBS 2TV '생방송 아침을 달린다' 일일 코너에 '선무 생활건강'이 방송돼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 선무를 지도하고 있는 이선옥교수(사진)는 "선무는 단순한 동작이 아닌 자신의 근본자리에서 내면의 자신과 몸속의 기를 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종교인들 불교에 호감"

10년후 불교세 감소예상…포교대책 절실

홍기원교수 845명대상 '종교태도'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분포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순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후에도 이러한 순서로 유지되고 있을까. 개신교가 월등한 교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불교포교에 교계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서울과 천안에 거주하는 일반인 3백93명과 대학생 4백53명 등 총 8백4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해 홍기원(호서대·산업심리학)교수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종교분포는 개신교 265명(31.4%) 불교 122명(14.4%) 천주교 81명(9.6%) 기타종교 24명(2.8%) 무종교 353명(41.8%) 등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자들은 종교 집단별로 10년후(2006년) 3대 종교단체의 교세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63.8%) 천주교(33.9%) 불교(28.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타종교의 교세확장에 대해서 개신교인은 천주교의 교세는 불변(42.7%)이나 불교는 감소(48.7%)할 것으로, 천주교인은 개신교는 증가(60.5%) 불교는 감소(51.3%)를, 불교인은 개신교 증가(47.1%), 천주교 불변(47.1%)을 예상했다.

이 결과에 대해 홍교수는 개신교의 교세가 증가하고 천주교의 교세는 현상유지, 불교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불교인에게 가장 호감(3.63%, 천주교인 3.52% 개신교인 3.05%)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에 포교강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종단소식



각해총인 21일 추대식

진각종(통리원장 락해)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총인원대강당에서 제8대 총인 각해대정사〈사진〉 추대식을 개최한다. 각해대정사는 제7대에 이어 8대 총인에 재추대됐다.

태고종 종조다례식

태고종은 지난 1일 북한산 태고사에서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혜초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중진 간부 동방불교대학 학생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고보우국사탄신 695주년 기념 종조다례법요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혜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보우국사의 다례법요를 계기로 종조의 원융회통 정신을 받들어 종단 화합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법화불음봉사단 발족

제주시 서귀포시의 10여개 법화종 사찰신도 70여명으로 구성된 법화불음봉사단(회장 문윤자)이 지난 10월25일 제주보문사에서 창단됐다.

지역봉사와 불음포교를 목적으로 한 법화불음봉사단은 매월 1회 불교교리 음악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목탁소리

청소년비행의 원인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근본원인을 무엇일까? 매년 수능 이후부터 약 3개월 동안 각 학교와 학부모들은 청소년지도에 비상이 걸린다.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갖가지 방법을 동원, 선도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처럼 모든 청소년문제의 시발이 유흥업소, 대중매체물 등의 영향때문이라고 관단,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이 그동안 최선의 지도방법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대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지난 8월 개최된 연합캠프에서 실시한 청소년의식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가장 큰 원인을 문화시설의 부족(24.6%)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정문제(20.7%), 나쁜 친구의 영향(20.%)이라고 답한 반면 성인들이 신각한 문제로 여겨왔던 대중매체의 영향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놓고 볼때 그동안 성인들의 안목에서 수십년간 진행돼온 '…하지마라, 안돼, …보지마라'는 식의 지도활동은 요즈음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예방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유흥업소와 향락문화에 청소년들이 젖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향을 고려한 지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건전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질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 97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뒤집힌 꿈

우리가 그토록 즐겨 염송하는 반야심경에 보면 앞부분에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관자재 보살께서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비춰보시매' 그로써 일체의 고액을 제도하고 진리를 설파하기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관자재보살을 이른바 모든 중생의 물들지 않은 자성이라해도 좋다. 그 자성의 비춤으로 보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수상행식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해서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이, 느낌, 감정, 생각 따위는 모두 공(空)하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을 끝까지 따라 염송하면 이 세계도 공이요 물질도 공이요 나도 공이요 우리들의 의식세계까지도 공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걸릴 것이 없고 머물것이 없으며 고통도 두려움도 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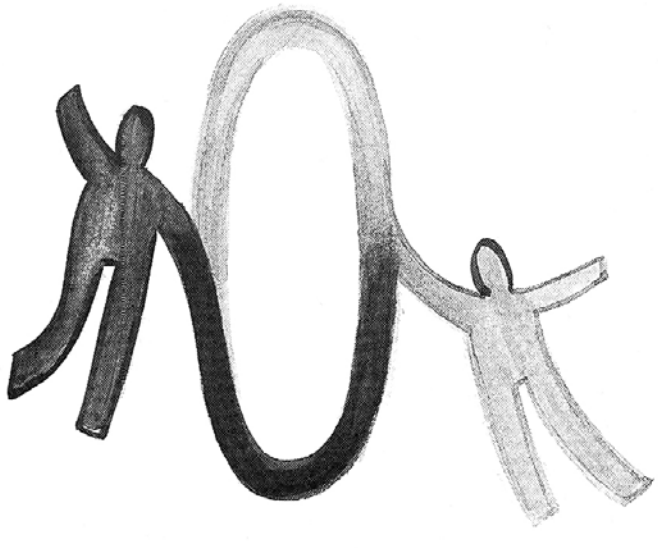
금강경의 이른바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 모든 형상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실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과 느낌의 연속적인 고리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한다. 그런 인식이 '나'를 시간적으로 항상하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우리는 또 육신이라는 그릇을 바깥 테두리로 삼아 내가 있다고 느낀다. 그런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나와 너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런 생각과 느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어떤 특정한 이름의 존재, 마치 독립된 성(城)과 같이 분리된 존재로 믿게 된다.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왜 경전에선 '오온개공'이라 하는가.

내가 분명히 있는 독립적 존재라고 한다면 그 '나'는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 육신이라는 통 속에 구겨 넣어져 있을가. 찰나로 생겨났다 사라졌다하는



그 생각·느낌을 따라 드러났다 숨어 있다 하는 것일까. 이 몸뚱이도,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니 나도 한번 시작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내가 분명히 독립적인 존재라면 어제의 행복했던 나는 어디로 가고 오늘의 고통스런 나로 남는가. 왜 어느 때는 두려워하고 어느때는 힘들어 하는가. 생사, 고락, 희비, 희망, 공포, 건강, 질병 등등 무수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그토록 변화무상하고 조변석개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따위의 생각을 불법은 뒤집힌 꿈같은 생각- 전도몽상(顚到夢想)이라고 한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고 독립적이 아닌 것을 독립적이라고 믿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나는 개별적이지도 실재적이지도 않은데 다만 관념적으로 '그렇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는것. 목격하는것, 듣는것, 관찰하는 것, 보는 것에 따라서 매번 다른 나를 자신의 관념세계에 채곡 채곡 보태가며 그렇게 쌓인것을 개별적인 나인줄 믿고 산다는 것이다. 애지중지하면서 -.

'조견오온개공'은 바로 그런 뒤집힌 생각을 바로 비춰봄으로써 독립적인 나는 결국 찰나로 변하는 허상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걸 비춰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걸림없고 두려움 없는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법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그 개체성을 과감히 포기하라고 가르친다. 이른바 백척간두 진일보이다. 나를 분리된, 독립적인 나로 생각하는 한, 그걸 포기 할 수 없노라 고집하는 한 불법은 천리 밖에 머물게 된다.

협찬 : 김 광 현

현불뉴스

선학원 전국분원장회의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96 가을 전국분원장 회의를 오는 20~21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집행부와 대화합을 모색한 8·27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분원장회의는 종단과의 화합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향후 재단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분원장회의에서 '사찰회경보존의 현황과 그 과제-연기영교수(동대 법학과)' '지방자치와 불교-서석재의원(정각회장)'의 강의가 펼쳐진다.

화엄사 장학법인 설립

구례 화엄사(주지 종열)는 최근 주변상가를 2억5천여만원에 인수하고 내년부터 1억원의 상가수입금으로 (가칭)'도광·도천장학법인'을 설립하여 장학금을 전달키로 했다.

선원사지 발굴개토식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지난 4일 고려 팔만대장경 관각성지 선원사지(사적 259호)에서 발굴 개토식을 개최했다. 설봉스님(무애원)을 비롯 지역스님과 송석구(동국대)총장 홍윤식(동대 박물관장)교수를 비롯 지역 기관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공추불 환경캠페인

중해추방운동불교인연합(회장 성타스님)은 지난 2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환경캠페인을 벌였다. 성타스님을 비롯 공추불회원 1백여명이 참석, 금산사 앞 모악랜드 및 해인골프장건설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맑고…' 경남본부 창립

맑고향기롭게 경남본부(회장 흥교스님)는 20일 창원KBS홀에서 창단식 및 법정스님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광주·전남 범종단 불교증흥 국가안정대법회 봉행위원회(대회장 영조)는 지난5일 광주구동체육관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한가운데 티베트 성 라마 로펜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대법회를 개최했다.

신병교육대 군법당 건립불사 '한창'

재정 어려움속 광복통일사·연무사등 6곳 신·증축

군불교 포교의 원산지 신병교육대 군법당 건립이 활발한 가운데 대부분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자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신교대법당이 건립되고 있는 곳은 25사단 비룡사(법사 심성련) 6사단 청원사(법사 성관) 5사단 광복통일사(법사 이종인)·9사단 백마사(법사 고현등) 법당의 신축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법사 경연수) 법당의 증축, 3사관학교 교육관 이전등 6곳에 이르고 있다.

25사단 비룡사는 지난 10월 중순 신병교육대 법당 기공식을 갖고 1백여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건평 55평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25사단 신교대 법당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오는 11월 중순경 준공예정이나 아쉽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6사단 청원사도 오는 15일 기공식을 갖고 8천만원예산에 매주 2백50여명의 불자장병들을 수용할 수 있는 60평규모의 군법당 건립을 추진한다. 청원사는 신교대법당 건립을 위해 6개월전부터 군부대내 불자와 주위사찰을 중심으로 모연하고 있으나 3천만원만이 확보돼 자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3천여명의 불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설법전 건립을 추진중이다. 93년 기공식이후 공사비 14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건립계획이 미뤄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12월초 또다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연운동을 통해 군법당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수재로 인해 신교대 군법당이 유실된 5사단 광복통일사는 1백~1백50평규모의 법당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1억여원의 법당건립 예산중 현재 3천여만원을 확보한 광복통일사는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곡자비회(회장 박미영) 13명의 회원들은 수재로 유실된 5사단 신교대법당 기금마련을 위해 김과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각 단체와 사찰에도 편지를 보내 불사동참(문의 (0355) 835-3071 32-0719)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불교계의 군포교는 총 32개소 국군 산병교육대중 군법당은 6곳에 불과해 100%에 육박하고 있는 타종교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현실이다. 1개사단에 1개사찰만이 인가되는 군현실에서 신교대 법당마련은 군법사의 여력으로 건립해야하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기독교는 재력을 갖춘 군선교후원회에서 군선교에 연 50억, 천주교는 15억의 집중적인 기금이 후원되고 있다. 이에비해 불교계는 5천만원지원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군승단은 신교대법당마련 캠페인과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연천=김원우 기자〉

통일불교학당·장학제등 신설키로

평불협 임시총회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지난 10월 25일 동보성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새로 위촉한 임원진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 평불협은 평불협의 96년 활동을 대체적으로 부진했다고 자평하고, 97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특별분과위원회를 상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사단법인체를 설립, 통일정책포럼 개설, 통일불교학당 개설, 통일장학제도 신설, 해외불교전문가초청 심포지엄개최, 〈북한불교연구〉총서를 발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평불협은 회원배가사업, 평불협회원 수련대회 등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신도교육서 '불교입문'

한달만에 1만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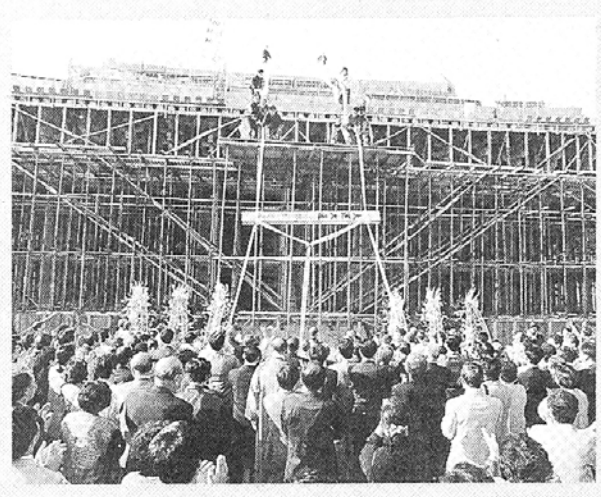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9월 불자들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편찬한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펴냄)이 발간 한 달만에 1만부가 팔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판매부수는 불교서적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로, 불서 전문책방 여시아문에서 집계한 '금주의 베스트불서'에 매주 상위권에 기록되고 있다.

이 책은 대부분 사찰과 불교교양대학에서 단체로 구입해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조계종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입문서라할만한 책은 여러 종 있었으나 초심자에게 권하고 교재로 쓸만한 책이 없었던 것이 많이 찾는 이유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불교의 기초교리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어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위한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더우기 환경 통일 사회봉사 성보의 이해와 보존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교적 대안을 제시해 기존 입문서와 차별을 보이고 있다. 집필은 소장불교학자들이 참여했으며, 감수는 월운(동국역경원장) 정락(전 포교원장), 무비(승가대학원장)스님이 맡았다.

포교원은 신도교육의 체계화에도 〈불교입문〉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 교재의 활용을 위한 강의계획표를 만들어 사찰과 불교교양대학에서 활용토록 보급하고 있다. 포교원은 이후 교리와 수행입문도 펴낼 계획이다. 〈운〉

동양최대 불교회관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3일 종정 도용스님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관문사 상량식을 가졌다. 98년 9월 준공될 관문사는 현재 70%의 공정율 보이고 있으며 종무기관과 국제회의장, 대·소법당, 소·대법회실, 전시관등이 들어선다.

동국 100년 후원의밤

12일 경주현대호텔서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2일 오후 6시30분 경주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후원의 밤의 기부금은 교육부지 확보와 건물시설보완 의료원 개·증축 등의 학교발전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에 호신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불상 1좌를 모시거나 명패를 시켜준다. 동국대는 후원인의 숙식과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지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0561)770-2099/2100

성직자 전용병동 생겼다

강남병원 11일개원…8층 스님·목사·신부 이용토록

성직자만을 위한 병동을 갖춘 최첨단 의료센터가 개원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강남병원(이사장 김동윤)이 바로 그곳.

강남병원은 기존의 병원과는 달리 스님, 신부, 목사 등의 성직자만을 위한 병동을 8층에 마련했다. 성직자병동은 예약제로 실시되며 접수에서부터 진료 및 입원 등 모든 의료행위가 전문화, 간소화되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병원은 국내외의 최정상급의료진과 최첨단시설을 갖춘 뇌신경, 심장, 성형외과 등 7개 전문클리닉센터와 31개 진료과를 두고 있다.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화랑과 같은 상설전시장, 호텔과 같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동윤 이사장은 "대부분 병원이 접수에서 진료까지 약 2~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님들의 경우 진료를 기피해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중생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는 성직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직자 병동을 별로로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갓바위 시주금 지역불사에 환원"

대구불교단체 요청

지난 94년 6월 조계종 개혁회의에 의해 총무원직할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관봉석조약사여래좌상) 시주금의 지역불교계로의 환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 대구직불협, 대불청 대구지구, 대한불교대불회 등 대구지역 10여개 신행단체는 지난 10월 31일 '대덕스님들께 올립니다'는 호소문을 통해 선본사 갓바위 시주금중 절반은 종단에, 나머지 절반은 불교회관건립 청소년포교사업 등 지역불사에 회향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도 조만간 갓바위 시주금 환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총무원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본사의 한 스님은 "지역불자들이 낸 시주금이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고스란히 종단에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회를 통해 직영사찰법이 개정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종단 관계자는 "선본사 시주금은 종단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종단차원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주 지역만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운영

승가원, 안암동에 내년 1월 순회재활사업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최근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4세에서 12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설치와 순회재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탁아복지시설로, 승가원은 성북구 안암동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승가원은 주간보호센터를 내년 1월부터 성북구 장애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복탈착훈련 신변처리훈련 물리치료 등의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승가원은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요보호대상자를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회재활프로그램 아동목욕 등 순회재활사업을 펼친다.

한편, 승가원은 주간보호센터와 순회재활사업 이용대상을 점차적으로 서울시 장애아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불우이웃돕기 자비대잔치

21일 마산불교자비원…연예인 축하공연도

마산 불교자비원(원장 일해)은 오는 21일 마산 MBC홀에서 불우노인 위한 '자비의 대잔치'를 개최한다.

마산·창원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독거노인 약 5백여명의 월동준비마련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1부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초청법회 2부 심진스님을 비롯, 불자가수 현숙 변혜림 김태곤씨 등 연예인들이 참석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밖에도 노인들을 위한 살풀이, 오광대, 각설이 등이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자비원장 일해스님은 "자비행사를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마음 진리를 밖에서 찾으니…

진리를 자기 안으로 찾탄하고 찾기보다는 밖으로 대상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와 더욱 멀어지 연려가 있다. (한마음선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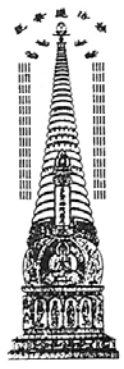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세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계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십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六庚申道通 제5회 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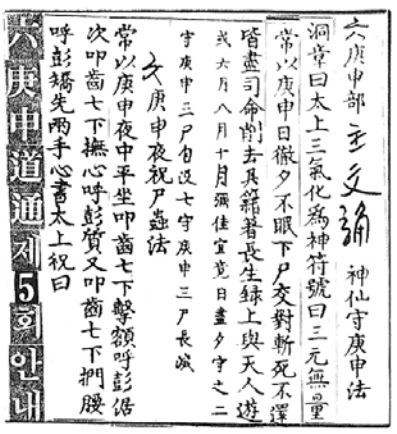
大道人되는 六庚申道通 제5회 기도법회가 양력 11월18일(음10월 8일 해시)에 입제하여 11월19일 (음 초 9일) 밤 해시에 회향하오니 동참하시여 일만이천 도인 대열에 입문합시다.

하늘이 인재를 만들려면 어려운 역경과 고행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한 자리인 만큼 말문과 문자와 아상과 학문을 초월한 자리인 고로 하늘, 땅이 그 소임을 맡기려면 근본심지를 시험하는 것이 근본 진리 이거늘 그 고비를 넘기는 기도가 육경신 기도이며 이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이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을 성취하여 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년 10月9日 제5회 경신일은 동·서양 시방에 모든 영계나 시방법계 영혼들의 천문이 열려 천신삼계, 지신삼계, 영신삼계와 木化土金水日月星神 모든 비밀장을 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1만2천 道人대열에 賢知靈通 4천명 智知靈通 4천명 聖知靈通 4천명이 모두 靈界의 맡은바 분야의 심지근본에 맞게 通할수있는 기회를 참고하시여 입문하시면 누구에게나 한가지 소원은 꼭이룰수 있으며, 고통을 여의는 기도인것입니다.

※ 동양철학 및 기문둔갑 양택음택 지도함

부적 제작 비법 공개

아무나 제작하거나 사용하면 무서운 재앙을 본인이 받거나 당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부적을 쓰거나 작법을 하시는 분은 六庚申 기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을 하면 듣지도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육경신 弟5회 기도 법회시 공개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부적의 비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大道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입제일 : 1996년 11월 18일(음10월 초 8일) 밤 10시
해제일 : 1996년 11월 19일(음10월 초 9일) 밤 해시
회 비 :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 화 : 02) 821-6622 · 야간 923-3110
육경신도통회 태일선원장 법사 태일 합장

건강백세 ㉙

위(胃) ②

복부(腹部)가 노출(露出)되면 온도가 떨어져 소화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요즈음 배꼽티가 유행인데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외에 과격한 운동 등으로 혈액이 다른곳으로 많이 이동해버려 위부분의 혈액 부족으로 인한 위액분비저하와 자율적 동작기능이 떨어지거되어 소위 '체'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위염(胃炎)'이라는것이 대부분 이렇게 장체된 위기능으로 인해 위속의 내용물이 부패되거나 경직될때 나타나는 긴장현상의 일종이라고 보아지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거나 장기화 될때 '위궤양(胃潰瘍)'이나 다른 더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예전에 식혜(단술=甘酒)를 담글적에 보온을 위해 덮어놓은 이불이 벗겨져 온도가 떨어지면 제대로 삭지못해 싹어버리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평안한 마음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식사함이 기본적으로 건강에 유리함은 더말할나위 없다.

위벽은 주름조직으로 되어있어 상당량을 먹어도 수용할 수 있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과식을 자주 반복하면 확장된 위조직이 원상태 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늘어지게 되어 위무력(胃無力)이나 위하수(胃下垂)등 물리적 변화로 인한 병변까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분별없는

과식·소화제 남용 위무력증 유발

위염등 긴장현상 장기화 '위궤양'



소화제나 위를 자극시키는 강한 양념류나 독주(毒酒) 등의 과용은 이런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켜 흡연과 더불어 절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참고로 위에 관계된 약은 무조건 소화제만 사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식체(食滯)가 되었을 때는 가볍게 위를 자극하면서 위가 활발한 작동을 하게하는 약이 필요하며 위산부족 즉 저산증(低酸症)에는 효소가 함유된 소화제가 필요할 것이며 위속에 상처나 과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산을 감소 내지는 조정 시키면서 위의 긴장요인을 해소시키는 약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학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본원리가 같아야 한다. 단지 약재의 선택이나 근본적 치료를 위해 기본장기의 치료에 임하는 이론만이 다르다는 점이다.

윤 읍 상 〈한의학 박사〉

주부신행담

절망은 없다 ② ·〈끝〉

"지금도 아내가 미운가요. 미움이 지나쳐 보고싶겠지요. 부부사이가 맙다가도 다 그런것이 아닙니까. 절망속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대강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것같은데 내담자는 조금씩 숨이 깨는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처럼 괴로울 때 의논할 친구나 이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아빠가 매일 술만 먹고 죽을만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믿는 종교가 있으신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절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밉고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죽음을 택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감정을 억제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무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을 외워 보세요. 미운 감정도 원망하는 마음도 죽고 싶은 마음도 잠시 뒤로 미루고 부처님을 찾아보세요."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모든것이 해결됩니까."

"네! 확신합니다. 우선 믿기전에 관세음보살을 자꾸 외워 보세요. 마음이 가라 앉으면서 길이 보일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자꾸 자꾸 불러 보시고 그래도 방법이 없으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지금 힘겨움을 느끼시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더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누구를 찾으면 되나요"

"저희 상담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게 되어있어요. 다시 전화 하실려면 00번 상담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꼭 다시 전화 주세요"

그는 심성이 곱고 여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침통한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을 외워 보겠노라고, 다시 전화가 없으면 죽었을거라고, 말도 끝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로부터 나는 희망과 절망 속을 오가면서 그의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새 생활을 찾았을까.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벌서 이승을 떠나 버렸을까?

긍금증은 절망감으로 절망감은 또 깊은 슬픔으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흐느끼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는 다시 나를 찾지 않았다. '인간이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을 뿐'이라고 한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그냥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면 그 남자 내담자는 또 나는 아니 모든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치 자기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한단 말인가?

끝없는 슬픔과 회의와 고통으로 방황하게



'통일기원' 화엄사 10만법등 단풍이 붉게물든 지리산 화엄사(주지 종열)에서 신심과 정성을 담은 10만법등이 점등돼 화엄의 연화장세계가 펼쳐졌다. 화엄사 사리친견회합법회는 작년에 西5층탑서 발굴된 부처님 진신사리 22과를 재봉안키위해 정진해온 불사에 1년여 동안 30여만명 친견에 8천5백여명의 법등불사 접수 불자들의 높은 동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참가한 1만여 불자들은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했다. 〈화엄사=김원우 기자〉

"작년 가을 싱가폴서 전화가 왔다 2년전 자살을 생각하던 상담자였다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합장을..."

한 그 남자의 전화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세월이 약이 되었던지 그 남자의 기억도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져가서 꽃피고 나염 흩날리기를 두번, 작년 바로 이맘때 싱가폴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나를 찾았다. 바로 그 자살 직전에 있던 내담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밝았다. 해외 건설업체의 노무자로 취업한 그는 그간의 살아온 경위와 다시 만난 아내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며 무엇보다 고맙다는 감사의 말과 부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로서 끝을 맺었다.

나는 나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황홀하였다. 이런 전화를 받다니.

아, 이것이 전화 상담원의 보람이 아닌가. 부처님, 보살님 감사합니다.

나는 합장을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상담실을 나오면서 바라본 가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우리는 세월을 물의 흐름에 비유한다. 흘러가는 것이 세월 뿐인가. 우리의 꿈 우리의 삶도 흘러간다. 누구나 그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다. 그 흐름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흘러가게한다.

무한한 시간속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면 이 존재의 유한성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기쁨 뒤에 슬픔이 슬픔 뒤에 기쁨이 있음은 이 사바세계의 어쩔수없는 역설(逆說)이다. 수없는 삶의 역설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에 대한 우리자신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이 '사랑'은 곧 자비이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행'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자비의 전화'가 끝내 추구해야 할 영원한 '화두(話頭)'가 아닐까?

나의 조그마한 노력 나의 보잘것 없는 힘과 봉사를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에게는 한없이 고맙고 기쁜 일이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또 오늘이 우리를 슬프게하여도 절망은 없을 것이다.

조 순 자
〈대구 자비의전화 교육부장〉



그림 · 이준석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금각사 ②

미사마 유키오 作

그후 나는 아버지의 죽음의 세계와 젊은이들의 삶의 세계가 서로 전쟁을 매개체로 해서 연결된 시절에 금각사를 다시 방문했다. 몹시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 유언대로 금각사의 도제가 되었다. 그때 나는 득도하면서 새파란 땐 머리를 하고 있었다. 공기가 머리 속살에 찰싹 달라붙어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내 머리 속의 생각이 얇고 상처받기 쉬운 민감한 피부 한 꺼풀을 사이에 두고 바깥세계의 물상과 맞닿아 있는 것만 같은 위험하게 느껴지는 묘한 감각이었다.

전쟁은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시절 쯔루가와를 만났다. 도쿄에서 온 쯔루가와는 항상 주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날카롭게 추론하는 습성이 있었다. 연합군의 일본본토 공습이 임박해지면서 '드디어 금각사가 공습의 불길 속에서 타 없어질지도 모른다'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자 금각사는 전에 없이 비극적인 아름다움이 더해 갔다.

쯔루가와는 이런 내 생각에 대해 "하지만 난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걸"이라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그의 말은 깨끗이 발가벗겨진 상태함을 실분 맛보게 되어 있는 불교적인 시간의 부활에 지나지 않았다. 절에서의 일과는 패전 다음날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힘든 일과를 보내며 나는 몽정이 심해졌다. 꿈속에서 이따금 몸 한귀퉁이에서 번갯불이 스쳐지나가듯 몽정은 시작하고 끝났다.

"사는 것과 파멸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 아름다움도 일종의 경련일 뿐"



그림 · 심민섭

이것이 속세로다. 전쟁은 끝나고 이 등불 밑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사악한 생각에 골몰해 있다. 수많은 남녀가 환한 불빛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바로 눈앞에 닥친 죽음 같은 행위의 냄새를 맡고 있다.'

소화 22년 봄, 나는 오타니 대학 예과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가시와기를 알게되었다. 그는 심한 안짱다리로 매일 외톨박이로 지냈다. 나는 그와 친분을 맺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노트와 도시락을 가지고 가시와기 옆에 섰다.

"저 잠깐만, 강의 때 잘 모르는 것을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자네가 나한테 왜 말을 걸어오는지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어. 병신끼리 친구가 되자는 것도 좋지만,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대시하고 있어."

우리는 종종 운동장을 함께 거닐었다. 가시와기는 종종 내 앞에서 즉흥적으로 연출해 보인 인생에서는 산다는 것과 파멸한다는 것이 모두 동일한 의미였다. 그 인생에서는 자연스러움도, 금각사와 같은 아름다움도 일종의 고통스런 경련에 지나지 않았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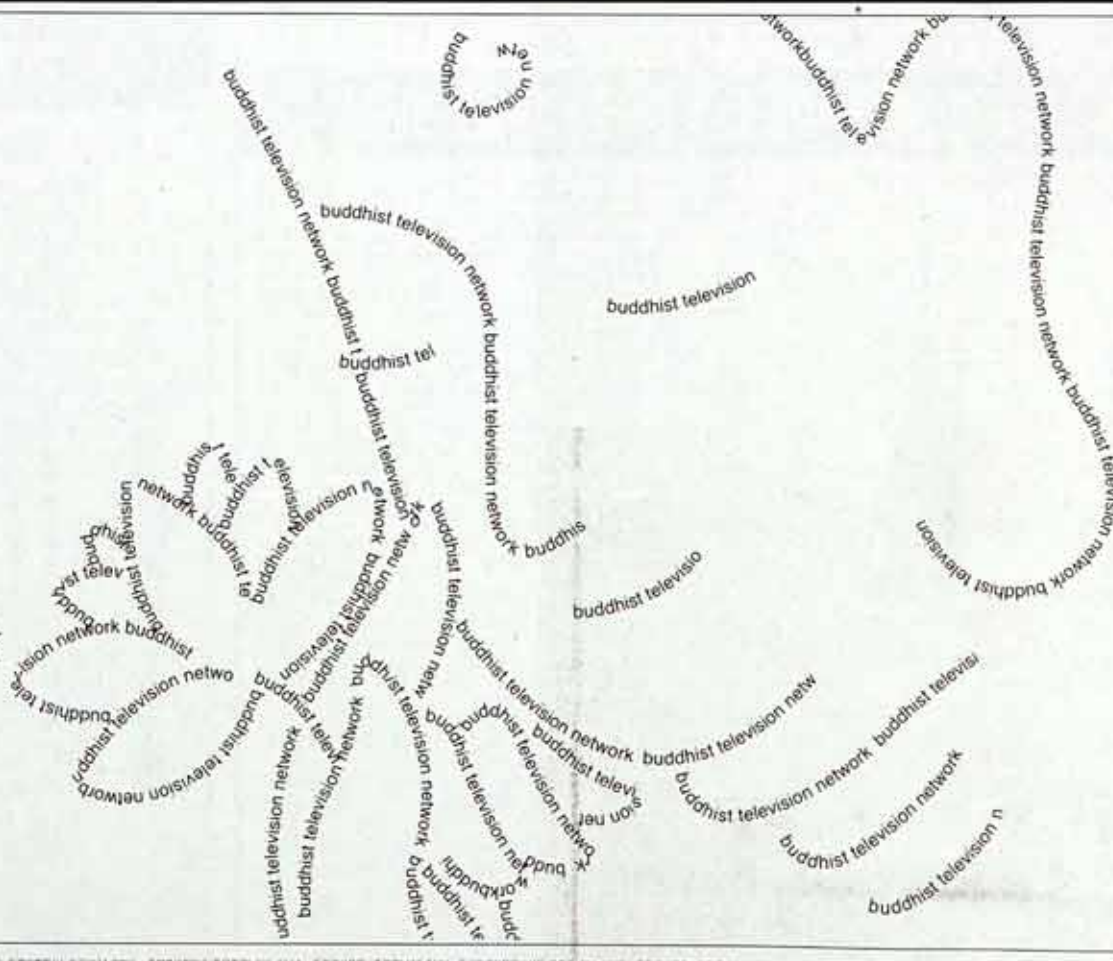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동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천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